

1993 I 2 성도의 빛

만원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표지 설명 :

구세주의 탄생과 관련된 사건들을 재현하는 것은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이 참된 크리스마스 정신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매우 감동적인 방법 중의 하나이다.
폴 만 그림

어린이란 표지 :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 것은 유럽에서 기원되었지만, 세계 여러 곳에 있는 어린이들은 지금 그 전통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64쪽을 참조한다. 사진 촬영 : 멜러니 쉘웨이

일 반

대관장단 메시지 : 크리스마스의 영	토마스 에스 몬슨	2
낙타를 옮김	자넷트 아이스톤 벅	8
목자를 알라	로버트 이 웰즈	10
조셉 필딩 스미스 : 온화한 사도	레온 알 하트슨	26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디 켈리 옥든	34

청 소 년 란

가장 훌륭한 선물	지미 카이리	18
우리의 크리스마스 파티	넷사왈코요틀 살리나스 베야사에스	18
크리스마스 선물		20
주님은 살아 계시며	샬리 제이 오데커크	32
단편 소설 : 아주 훌륭한 크리스마스 메시지	엘마 제이 예이츠	42

정 기 특 별 기 사

애독자 편지		1
방문 교육 메시지 : 성약의 여성		25
교회 및 지역 소식		65

어 린 이 란

물문경 이야기 : 암몬의 백성		50
대관장단이 전세계의 어린이들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메시지		53
함께 나누는 시간 :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려요	주디 에드워드	54
노래 : 목자들의 캐럴	다니엘 리먼 카터	56
한 예언자로 시작된 교회	셰리 존슨	57
꾸며낸 이야기 : 크리스마스 선물	루이스 앵스트롬	60
크리스마스 공예품		64

영적인 인도자

성도의 빛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간-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사모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및 핀란드어.

격월간-인도네시아어, 타이어, 타히티어.

계간-아이슬란드어.

대관장단: 에즈라 태프트 벤슨,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정원회: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통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날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엘 러셀 밸리드, 조셉 비 워스리, 리처드 지 스퀴트

고문: 렉스 디 피네가, 찰스 디디에이, 로버트 이 웰스

통 권: 제33호, 제30권, 제12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1993년 12월 1일(월간지)

발행인: 한 인 상
편집인: 한 상 의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은행 지로 번호 3001543

인쇄인: 영 인쇄 (주) 이 세 용

© 1993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영어 승인-10/91, 번역 승인-10/91

November 1993 International Magazine의 번역본.
Korean. 93992 320

성도의 빛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권당 500원이며, 성도의 빛 해외 구독일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등) 12,000원, 2지역(필리핀, 중국 등) 16,200원, 3지역(중동 등) 23,200원, 4지역(중남미 등) 26,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 센터(☎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ONGDO-UI POT(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Second-clas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ies.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고대에 리하이와 그의 가족을 인도하였던 원래의 리아호나처럼, 잠지인 리아호나(스페인어 판)도 저와 저의 가족에게 진실로 영적인 인도자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저를 가르치면서, 저에게 이 교회가 참되며 제가 침례를 받아야 할지를 주님께 여쭙어 보도록 권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자마자 방금 전에 받은 리아호나를 집어 들어야 한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1985년 10월 연차 대회 특집호였는데, 저는 생각나는 대로 한 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놀라게도 "유일한 참된 교회"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님이 하신 이 말씀은 제가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의 회원이 된 지 몇 년이 되었는데, 앞으로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리아호나는 이 교회가 참되다는 사실을 제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 인도자가 되고 있는 이 리아호나가 다른 많은 사람들도 진리로 인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카티우스카 카레노
라스 아카시아스 지부
에파도르 포르토티비요 스테이크

진리를 앎

진리를 알게 되어서 깊이 감사드리며, 정말 재미있는 잠지인 탐블리(영어판)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교회 회원이 된다는 일이 너무나 훌륭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잡지를 사용해서 복음에 관한 지식을 나눕니다. 저는 이것이 사람들이 교회에 관해서 알 수 있고 또한 그 원리를 그들의 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방편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저와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이 이 잡지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그 친구는 탐블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즐겨 읽고 있습니다.

저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매우 축복받은 청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샬리 에이치 발렌시아노
말라오 와드
필리핀 나가 스테이크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름

매달 리아호나(스페인어 판)에 실린 기사들로 제 가슴을 채울 수 있어서 기쁩니다. 리아호나는 저를 보호해 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자와 지도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밝혀 주신 메시지를 저에게 보여 줍니다.

이 잡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그분을 따르는 교회 회원들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와 사진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분들은 온갖 언어와 국적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이 잡지가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것에 대한 강한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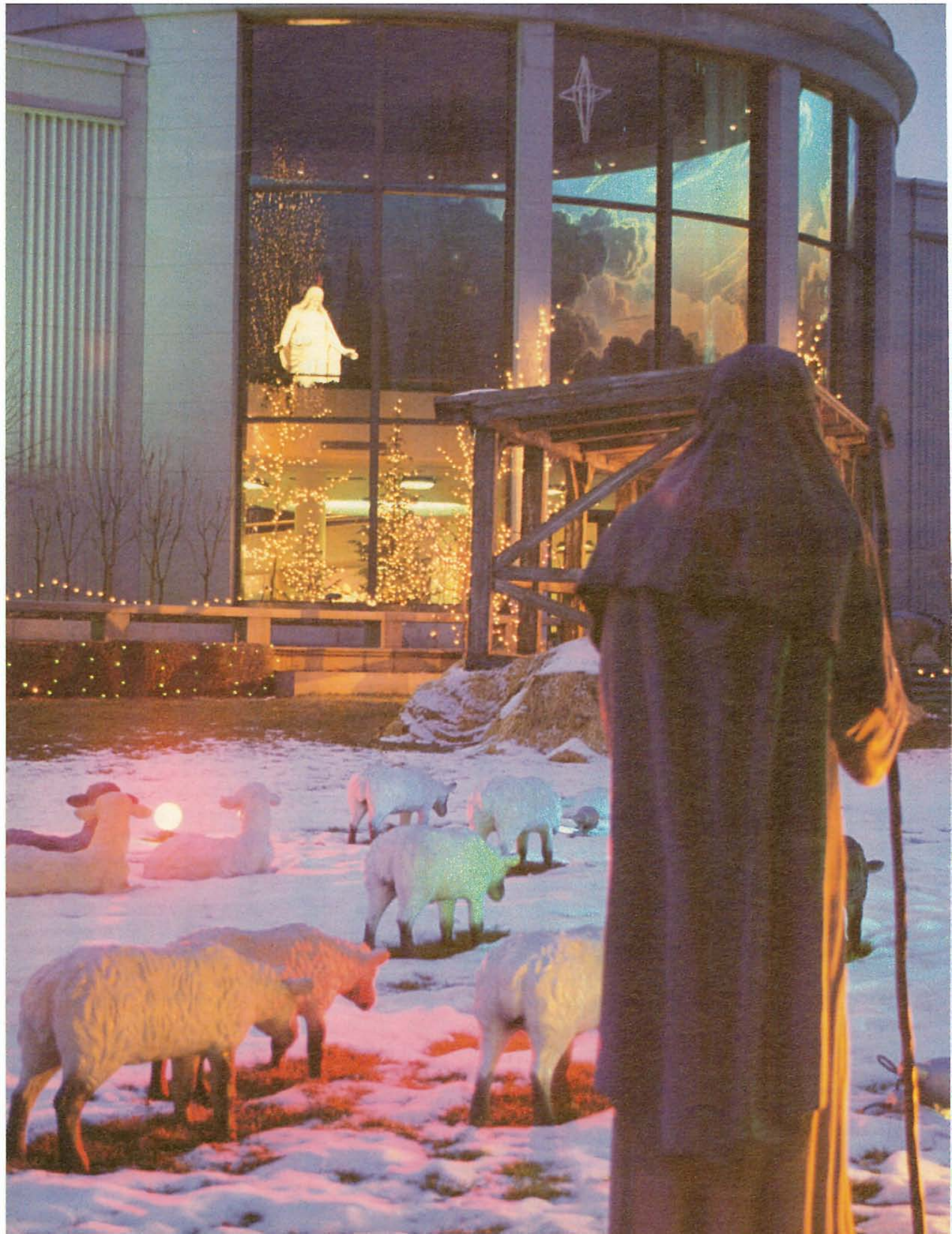
호세 카조를라 그라나도스
말라가 지방부 말라가 제1지부
스페인 세빌 선교부

초등협회의 기원

리아호나(스페인어 판)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갖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리아호나를 받아들자마자 초등협회에 관한 기사를 살펴보니, 그 이유는 초등협회의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오래 된 회원들에게 초등협회가 어떻게 생겨났으며,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묻습니다.

우리는 상호부조회 역사가 약 백 년 이상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초등협회 기원에 관한 기사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라 베티 아마야 데 실바
페루 팔레르모 스테이크



크리스마스의 영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솔

트레이크시티의 템플 스퀘어는 언제 보아도 아름답지만, 오늘 밤은 특히 더 아름답습니다. 방금 내린 눈과 겨울 밤의 추위 속에서 크리스마스 장식용 전깃불들이 반짝거리고 캐롤이 울려 퍼지며 가족들이 서로 감싸 안은 채로 삼삼 오오 걷는 모습이 크리스마스가 가까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크리스마스를 알리는 수많은 징표들!
어디를 둘러봐도 눈에 뜨입니다.
참으로 알 수 없는 흥분이 있어,
대기 속에서 그것을 느낍니다.¹

백 년도 넘는 이 유서깊은 태버내클 안에서, 크리스마스 색조와 전통적인 장식품들이 우리를 소중한 기억 속으로 부드럽게 감싸고는 1847년 12월 25일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계곡에서 레베카 라이트 부인이 일기에 기록한 한 개척자의 장면을 보여 줍니다. “추운 겨울이었다.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지만 아이들은 굶주리고 있었다. 나는 평원을 건너올 때 밀을 한 자루 가져 와서 나무 더미 속에 감추어 두었었다. 밀을 한 줌 가져다가 아기에게 끓여 먹일까 하고도 생각해 보았지만, 봄에 씨앗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에 있는
실물 크기의 그리스도의
탄생 장면(왼쪽)에는
그 선택된 밤에 주의
천사가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난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뒷 배경으로 북방문자
센터 창문을 통해서
본 그리스도 상이
어렴풋이 보인다.

신앙과 희생과 사랑과 눈물이 솔트레이크에서 맞이한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우리들의 가정과 가슴 속에까지도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야말로 참으로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의 일부입니다.

나는 크리스마스의 영입니다.

나는 가난한 가정을 찾아가서 창백한 모습의 어린이들이 갑작스런 기쁨으로 두 눈이 휘둥그레지게 합니다.

나는 구두쇠의 꼭 움켜 쥔 손이 펴지게 하여 그의 영혼에 밝은 점을 그려 넣습니다.

나는 노인들이 젊음을 되찾고 옛날을 회상하며 함박 웃음을 짓게 합니다.

나는 어린이들의 가슴 속에 낭만이 살아 있게 하고 마술로 짜여진 꿈을 꾸며 즐거운 잠 속에 빠지게 합니다.

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줄 물건으로 가득 찬 바구니를 들고 어두운 계단을 올라가게 하여, 궁핍한 사람들이 세상에 숨어 있는 선한 행위에 놀라도록 만듭니다.

나는 탕자가 방탕하고 낭비적인 길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표징을 보여 주어 깊게 패인 슬픔의 주름을 씻어 주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해줍니다.

나는 어두운 감옥으로 들어가, 상처난 사람들에게 과거를 돌이켜 보고 앞으로 다가올 좋은 날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나는 소리 없이 고요한 병실을 찾아가 환자들이 말할 힘도 없어서 말 없이 입술만 떨면서 그 어느 아름다운 말보다 더 감사의 말을 하게 합니다.

나는 수많은 방법으로 이 매마른 세상이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려 잠시 동안 천하고 가치없는 모든 것들을 잊도록 해줍니다.

나는 크리스마스의 영입니다.²

휴 비 브라운 부대관장께서는 크리스마스의 영이 영혼의 전망창을 비추면, 우리는 바쁜 인생사 속에서 밖을 내다보며 물질보다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

셨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영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크리스마스의 영(the Spirit of Christmas)에서 마지막 음절인 -마스(-mas)를 빼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옛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날인 그 최초의 크리스마스 날을 특징짓는 영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이사야의 다음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이사야 7:14) 이사야는 다시 다음과 같이 천명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그 이름은…평강의 왕이라 할것임이라”(이사야 9:6).

한편 미대륙에서는 예언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때가 이르러 멀지 아니하여, …전능하신 주님께서…혹으로 지어진 장막에 거하시며, …보라 그는 시험을 받으며…고통…을 겪으며, …저는 하나님의 아들…예수 그리스도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모사이사야 3:5, 7~8).

드디어 기다리던 밤이 찾아와 목자들이 들에 머물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누가복음 2:10~11). 목자들은 서둘러 마굿간으로 가서 그리스도 주께 경배를 드렸으며,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온 박사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마태복음 2:2, 10~11).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그 아기와 더불어 위대한 축복이 주어졌는데, 이 축복은 어떤 무기보다도 강하고 그 풍부함은 가이사라 돈보다도 더 오래가는 것입니다. 이 아기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약속된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운명을 갖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선물을 나누어 주는 정신이 성탄절을 경축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깃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자신에게 “1년 중 이 소중한 절기에 하나님



로버트 디 벡의 그림

베들레헬에서 탄생한 아기와 더불어 어떤 무기보다도 강한 힘과 가이사의 돈보다도 더 오래가는 부가 주어졌다. 이 아기는 만왕의 왕,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될 운명을 지녔다.

“내가 그분과 이웃에게 어떤 선물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고 자문할 경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지 궁금합니다. 에머슨의 다음 글귀를 기억하십시오. “반지와 기타 보석은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이다. 진정한 선물은 오직 자신의 일부를 주는 것이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참 행복이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데에서 오는데, 이것은 곧 자신의 목숨을 잃은 자는 그것을 찾는다고 하신 구세주의 교리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 크리스마스의 영은 우리의 마음속에 형제애와 우정이 가득 차서 우리가 친절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도록 자극하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 곧 지상에 평화를 가져 오는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인간을 향한 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모사이야서 2:17)이라는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찰스 디킨스의 불후의 작품인 크리스마스 캐롤에서 에버니저 스크루지에게 나타났던 제이콥 말리의 유령과 같은 끔찍한 처지를 당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스크루지는 말리의 온 몸을 칭칭 감고 있는 커다란 쇠사슬을 보고 “자네 쇠사슬에 묶여 있구만. 왜 그런지 말해 줄 수 있겠나?”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말리는 “내가 이승에서 만든 쇠사슬을 걸치고 있는 거라네. 내가 이 고리 하나씩을 늘려 결국은 그게 몇 미터씩 더해져 이렇게 된 것일세.”라고 대답했습니다.

스크루지는 “그렇지만 자네는 늘 정직한 사업가였잖은가, 제이콥?”하고 말하며 그를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사업이라고! 인간사가 나의 사업

이었지. …그 결과 그 작은 영역 내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것처럼 친절하게 작용하여, 그것이 무엇이든, 인생에서 여러 가지 가치있는 일들을 다 하기에는 우리네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사실을 몰랐지. 뿐만 아니라 아무리 후회를 해도 인생에서 한 번 놓쳐 버린 기회는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것도 미처 깨닫지 못했었다네. 그게 바로 나였네, 아! 그게 나였어!”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말리는 덧붙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눈을 아래고 떨군 채로 세상의 물결 속에 휩싸여 걸어가며, 눈을 들어 동방 박사들을 한 초라한 마굿간으로 인도했던 그 축복된 별을 한 번도 보지 못했을까? 그 빛이 나를 인도해 갈 가난한 가정이 하나도 없었던 말인가?”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는 특

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지 눈을 들어 보기만 한다면 우리도 그러한 기회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밝고 특별한 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딕과 메리 헤들리의 크리스마스 카드에 적혀 있는 아름다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현대의 기적”입니다.

거기에서 헤들리 부부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세계 구호 사업”을 돕고 있는 우리 가족과 친구들은 말일성도 교회 ‘인도주의 구호 사업부’의 도움으로 수개월 동안 식량과 의복, 의약품, 담요 및 장난감 등을 모아 왔습니다. 드디어 그 사업의 마지막 단계를 실행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날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컨테이너를 선적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루마니아에 있는 고아원으로 보내질 12미터에 달하는 컨테이너에 물건을 싣는 그 막바지 몇 시간은 눈코 뜰새 없이 바빴습니다. 18, 150 킬로그램에 달하는 필수품들의 선적을 마쳤습니다. 프로보에 사는 제 친구 바바라 브린튼은 그야말로 마지막 순간에야 도착을 했습니다. 바바라는

몇 가지 물건을 가져 왔는데, 그중에는 어린이용 교정용 보행기도 있었습니다. 바바라의 이웃 사람이 바바라가 고아원을 돕기 위한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루마니아에 있는 어린이가 혹시 필요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해서 자기집 아이가 쓰던 것을 보내 왔던 것입니다. 제 딸 캐시는 고맙다고 하면서 그 물건을 받아 들고는 묘한 표정을 하고 그 교정용 보행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필요한 목록에 교정용 보행기는 들어 있지 않았지만, 딸 아이는 ‘뭘, 그다지 무겁지 않으니까 실어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루마니아에 도착해서 한 의사를 만났는데, 그 의사는 여러 가지 신체 장애가 있는 레이몬드라는 네 살된 고아를 돌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레이몬드는 날 때부터 양 발이 심하게 기형이었으며 눈도 먼 상태였습니다. 최근



사람들 중에는 “요즘 기적이 어디 있어요.”라고 말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자신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루마니아의 그 의사는 “분명히 있지요. 우리가 경험했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발달된 정형 의술로 기형이었던 발을 교정하여, 린 오본 박사는 레이몬드에게 걷는 연습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오본 박사가 우리에게 한 첫마디는 ‘아, 여러분이 물품을 갖고 오신 분들이군요. 레이몬드를 위해 어린이용 교정 보행기를 갖고 오셨으면 좋겠군요...’라는 말이었습니다. 캐시는 ‘교정용 보행기를 실은 기억은 나는데, 크기가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캐시는 우리 아들 브루스를 컨테이너로 돌려 보내 옷가지들과 식량 상자더미 속에서 보행기를 찾아오도록 했습니다. 브루스는 그걸 찾아서 높이 치켜 들고는 ‘작은 것인데요!’하고 소리쳤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오더니 곧 눈물로 변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현대의 기적을 본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요즘 기적이 어디 있어요.’라고 말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자신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 의사는 아마도 ‘분명히 있지요.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레이몬드가 걷고 있거든요!’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교정용 보행기를 내놓아야겠다는 영감을 받은 그 이웃은 주님을 기꺼이 따르는 주님의 도구였으며, 그도 그 일이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이 경험을 통해서 삶의 풍성함을 얻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간증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딕과 메리 헤들리는 아마도 딕이 심장마비 증세가 있는 후 의사가 부정적인 진단을 내렸던 그날을 회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의사의 소견은 간단했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치료 불능의 상태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심장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 후 확고 부동한 신앙과 진지한 기도가 이어졌으며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심장과 회복된 인생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찬 감사하는 영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딕 헤들리 가족과 비슷한 특징을 디킨스의 소설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크리스마스를 경축하고 가능한 일년 내내 그것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 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거야. 세 유령이 모두 내 안에서 애쓰겠지. 나는 그들이 가르친 교훈을 배척하지 않겠어.”

크리스마스 절기에 가르치신 심오한 교훈 중의 한 가지는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탄식하신 내용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마태복음 8:20).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누가복음 2:7). 이 말은 주님의 발자취를 끊임없이 쫓아다니며 그분의 마음을 슬프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이 다음에서 묘사한 지고의 선물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로마서 6:23). 주님이 하신 다음 약속은 영원토록 유효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요한계시록 3:20).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영은 주님이 주신 다음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한복음 11:25~26).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나처럼 가난한 자가?

만일 내가 목자라면,
어린 양을 드릴텐데,
만일 내가 동박 박사라면,
선물을 드릴텐데.

그러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마음 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을 때, 크리스마스의 영은 우리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귀중한 선물을 얻어 기꺼이 나눌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몬슨 부대관장께서 1992년 12월 6일, 대관장단 크리스마스 영적인 모임에서 하신 말씀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신앙, 희생, 사랑, 눈물은 우리가 소위 크리스마스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의 일부이다.
2. 오늘 우리는 자신에게 “1년 중 이 소중한 절기에 하나님은 내가 그분과 이웃에게 어떤 선물을 하기를 원하실까?”하고 자문함으로써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다. 단지 눈을 들어 보기만 한다면, 우리도 그러한 기회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밝고 특별한 별을 보게 될 것이다.

주석

1. 작자 미상.
2. 작자 미상.
3. 랄프 왈도 에머슨 전집(뉴욕:더블류 엠 에이치 와이즈 출판사, 1929년), 286쪽.
4. 복음 이상: 데이비드 오 맥케이 설교집 초록(솔트레이크시티: 임프르브먼트 이라, 1953년), 551쪽.
5. 찰스 디킨스, 크리스마스 캐롤, 찰스 디킨스 작품집에서 발췌(뉴욕:그래머시 출판사, 1982년), 542~543쪽.
6. 같은 책, 581쪽.
7. 크리스티나 로제티, “추운 한겨울에”, 시의 이론, 알 브라이언트 편집(미시간 그랜드 래피즈: 존더반 출판사, 1968년), 161쪽.

낙타를 옮김

자넷 아이스톤 벅

우리 가족은 크리스마스 때마다 사기로 만들어진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는 물론이고 박사들과 낙타와 목자 그리고 양들까지 갖추어진 그리스도의 탄생 장면을 장식하는 전통을 즐겨 왔다. 크리스마스 절기마다 그 탄생 장면의 장식은 똑같았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였던 어느 해, 나는 크리스마스를 위한 첫 준비로 그 사기 인형들의 포장을 조심스럽게 벗겨서 늘어놓았다. 우리 아이들은 주변을 둘러싸고 그것을 지켜 보았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또 목자들과 박사들의 방문에 관해서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나서 나는 늘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그 인형은 깨지기 쉬운 것들이라고 설명하면서 만지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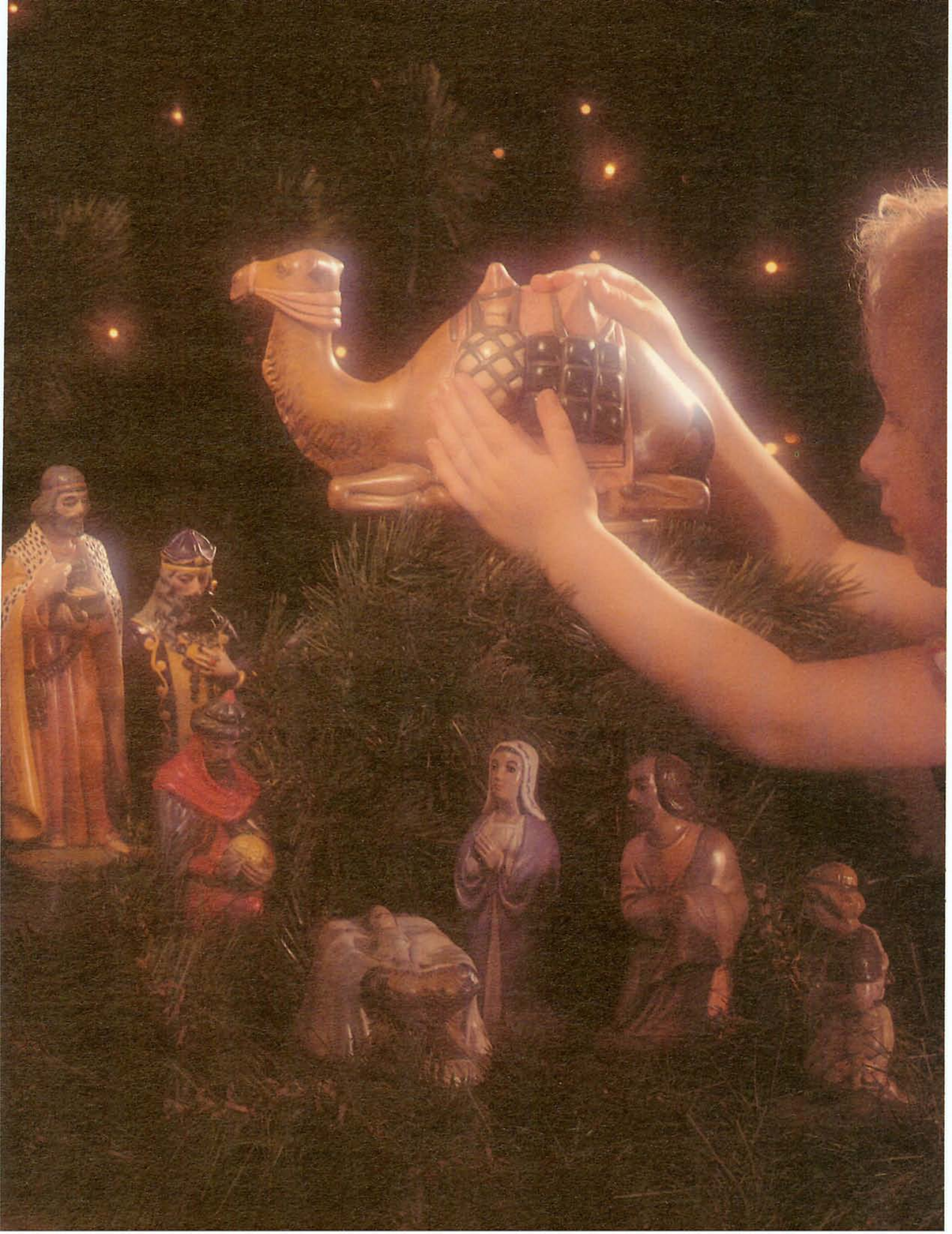
그러나 그 해에 두 살된 우리 딸, 엘리자베스에게는 그 유혹이 너무 컸다. 그것을 장식하던 날, 나는 엘리자베스가 여러 번 낙타와 양들을 제 자리에서 옮겨 놓았음을 알아채고 다소 짜증이 났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것들을 도로 제 자리에 옮겨 놓고 엘리자베스를 찾아서 그대로 놔 두라고 주의를 주었다.

다음날 아침, 엘리자베스는 나보다 먼저 일어나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나는 거실에 들어간 즉시 그 구유 장면이

다시 멋대로 배열되어 있음을 알아차렸다. 모든 조각들이 서로 맞닿을 듯이 촘촘하게 한 곳에 모여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다시 배열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 새로운 배열 속에 어떤 뜻이 들어 있다는 생각에서 그 자리에 멈춰섰다. 스물 세 개의 상이 모두 얼굴을 안쪽으로 하여 마치 그들 가운데 놓인 아기 예수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처럼 서로 밀치는 자세로 둥그렇게 놓여져 있었다.

두 살박이의 통찰력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영이 나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확실히 그리스도는 우리 크리스마스 축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크리스마스 절기 동안 뿐만 아니라 매일 우리의 구세주 주위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더 훌륭한 시각을 지니겠는가! 그렇게 된다면 그분이 우리들 각자에게 베푸신 사랑을 그분께 그렇게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과도 쉽게 나누게 될 것이다.

그 해에 나는 그리스도의 탄생 장면을 엘리자베스가 배열한 대로 놓아 두었다. 그것은 남은 크리스마스 절기 동안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상기시켜 주는 간단한 도구가 되었다. □



목자를 알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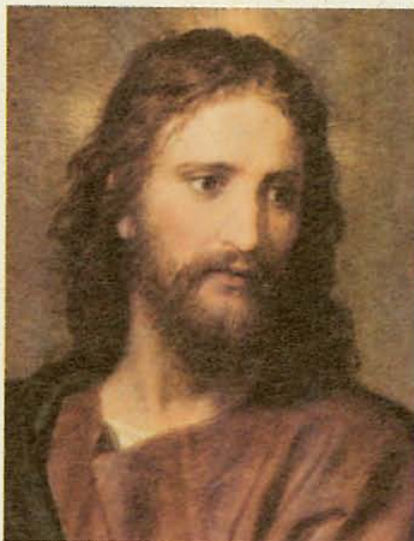
로버트 이 웰즈 장로
칠십인 정원회

언젠가 뉴욕시의 큰 극장에서 훌륭한 연기를 보여 준 연극 배우의 감명깊은 이야기를 휴비 브라운 장로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배우가 연극을 마치자 장내에서는 터져 나갈 듯이 박수가 울려 나왔습니다. 그는 두 번, 세 번 거듭 박수에 답을 하였습니다. 마침내 누군가가 그에게 “시편 23편을 낭송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죠. 시편 23편의 구절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연극 배우답게 관객들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암송하였습니다. 암송이 끝나자 다시 우리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배우는 무대 앞으로 나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노인 한 분이 맨 앞줄에 앉아 계십니다. 사전에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분에게 시편 23편을 낭송해 주십시오고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 노신사는 놀랐습니다. 그분은 떨리는 수족을 이



끌고 무대로 나와 서서 장내를 꼭 메운 청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집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인이 낭송을 마쳤을 때 박수 갈채는 없었으나 극장 안에 있던 모든 청중들의 눈은 젖어 있었습니다. 그 배우가 다시 무대 앞으로 나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저는 시편 23편의 글

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목자를 알고 계십니다.” (휴비 브라운, *끊임없는 추구*,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61년 335~336쪽)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우리에게 목자를 아는 사람이 되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는 경전과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의 간증을 연구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신 계시와 영감





경전 공부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가르치고 사랑하고 병을 고쳐 주시며 걸으시던 그때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목자로서의 그분에 대해 배우고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하나님, 가족, 국가: 가장 큰 세 가지 충성심,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레트 출판사, 1974년 156쪽)

사랑으로 가득 찬 가슴

아르헨티나에 목자를 이는 백발의 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님은 주님과 그분의 교회와 자신의 동료를 위하여 일생 동안 봉사하셨습니다.

에르타 메요를 자매님이 처음으로 맡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은 선교사들의 인도를 통해서입니다. 선교사들은 메요를 자매님이 상당히 세련되고 교양이 있으며, 높은 교육을 받은 구도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에르타의 사랑에 찬 가정에서 몇 차례의 모임을 가진 뒤 일요일 교회 모임에 함께 참석하자고 초청하자, 쾌히 승낙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낡은 건물 안이였으며,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 새로운 구도자에 비하면 다소 누추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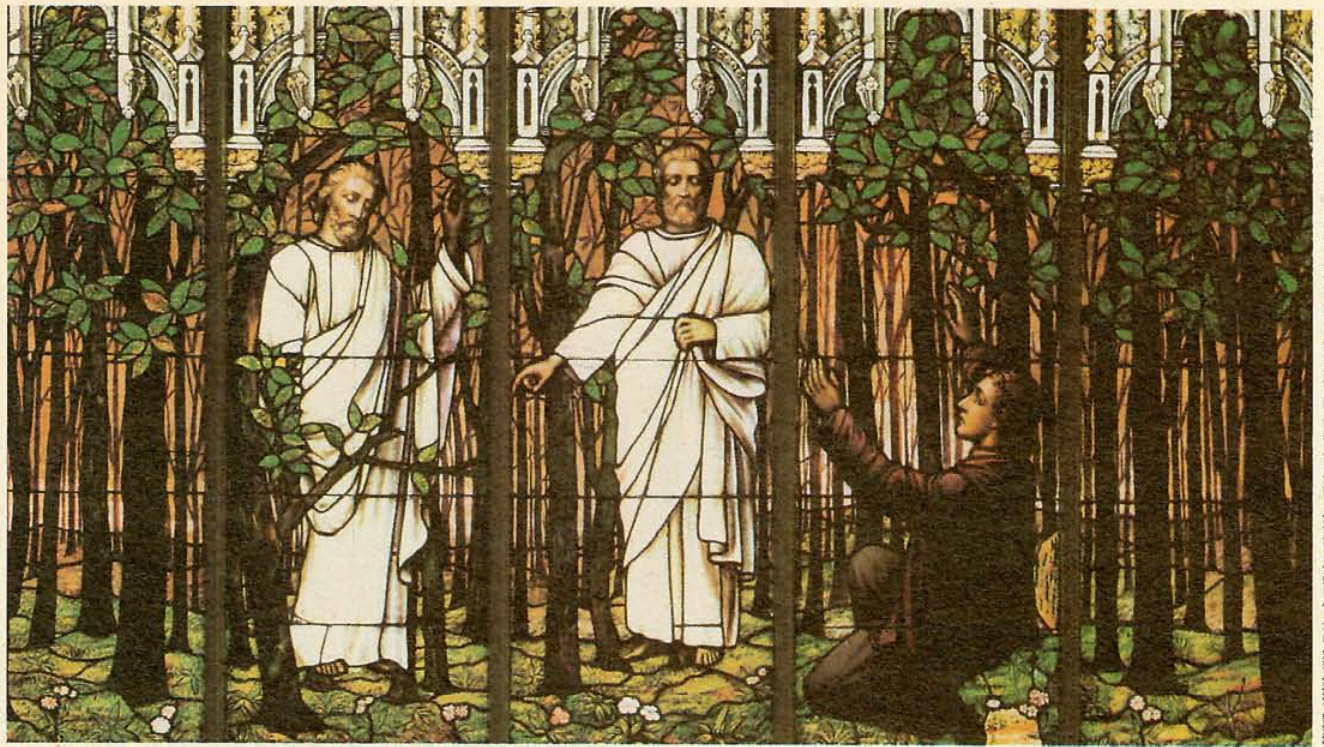
예배는 초대한 손님에게 감명을 주기를 원하는 두 선교사의 생각대로 잘 진행되어 나가지 못했습니다. 지부의 지도자들은 부름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들 역시 그들이 할 일을 배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연단 위에서도 무엇인가 약간 혼동이 있었습니다. 가장 성스러워야 할 순간 성찬대에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훌륭한 말씀이 나오기를 조바심하며 바라는 선교사들의 소망과는 달리 말씀도 별로 흥미가 없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돌아다니거나 우는 바람에 경건성이 깨어지기도 했습니다. 깊고 종교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기 위한 울갠도 없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점점 구도자가 얼마나 좋지 않은 첫인상을 받게 될까를 생각

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주로 매우 화려하게 장식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모인 회중들도 대체로 상류층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선교사가 당황했던 순간을 다음과 같은 말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이 누추한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언젠가는 저희도 아름다운 새 예배당을 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렇게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에 대하여도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평신도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가면서 사회를 맡고 있으며, 새로 부름받은 지도자는 아직 예배 진행 방법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선교사가 또 다른 문제에 대하여 변명을 시작하려 할 때 메요를 자매님은 그에게 다소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장로님, 사과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당시의 교회도 이러했을 거예요!”

메요를 자매님은 영적인 통찰력과 경전을 연구함으로써 얻은 목자에 관한 지식으로 수 세기 전의 전통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메요를 자매님에게는 웅장한 예배당과 울갠을 초월하여 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초라한 어부들인 사도, 죄인, 심지어는 문둥병으로 따돌림을 받은 자들과 함께 가졌던 목자의 모임을 돌이켜 보았으며, 세든 조그마한 다락방에서 모인 초기 성도들의 모임도 그려 보았고 구세주께서 웃음을 띄고 어린아이들을 사랑스럽게 보시는 모습도 그려 보았습니다. 메요를 자매님은 목자를 알았기 때문에 심오하고 깊은 통찰력으로 “그리스도 당시의 교회도 이러했을 거예요.”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메요를 자매님은 많은 사람들이 따른 다음과 같은 권고를 실천해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를 채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며, 그리스도께 대한 예배로써 일생을 채우라.”



첫번째 시현의 세부 묘사, 송트레이크 리버티 스테이크의 제2드림을 위한 후시 필스틴 카니의 스테이크 창문

우리는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왼쪽)과 커틀랜드 성전에 구세주께서 나타내셔서(오른쪽) 그에게 주신 주목할 만한 계시를 통해 목자를 직접 아셨던 분에게 드리는 명예를 그에게 돌립니다.

목자를 알았던 한 예언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진실로 목자를 알았다고 생각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여러 세기가 지난 후에 이 지상에 처음으로 있었던 살아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시현으로 구세주를 처음 보았던 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나의 머리 바로 위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기둥은 머리 위로 점점 내려와 드디어 그 빛은 나를 비쳤습니다.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함과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요셉 스미스 2서 : 16~17)

그 후에 예언자는 부활하신 구세주에 대한 또 다른 중대한 시현을 보았습니다. 그것에 관해 그는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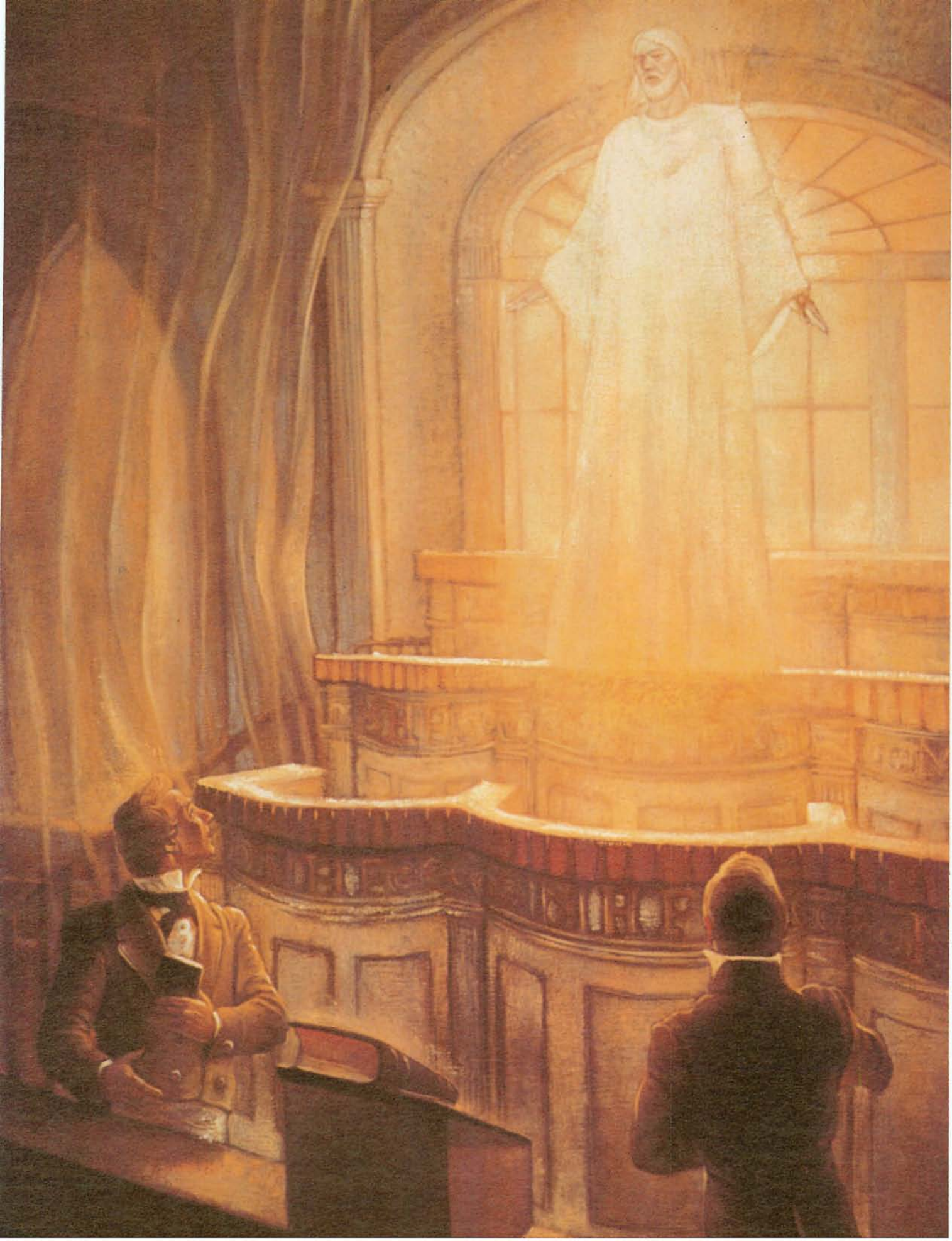
“우리의 마음에서 장막이 걷히고 이해의 눈이 열리는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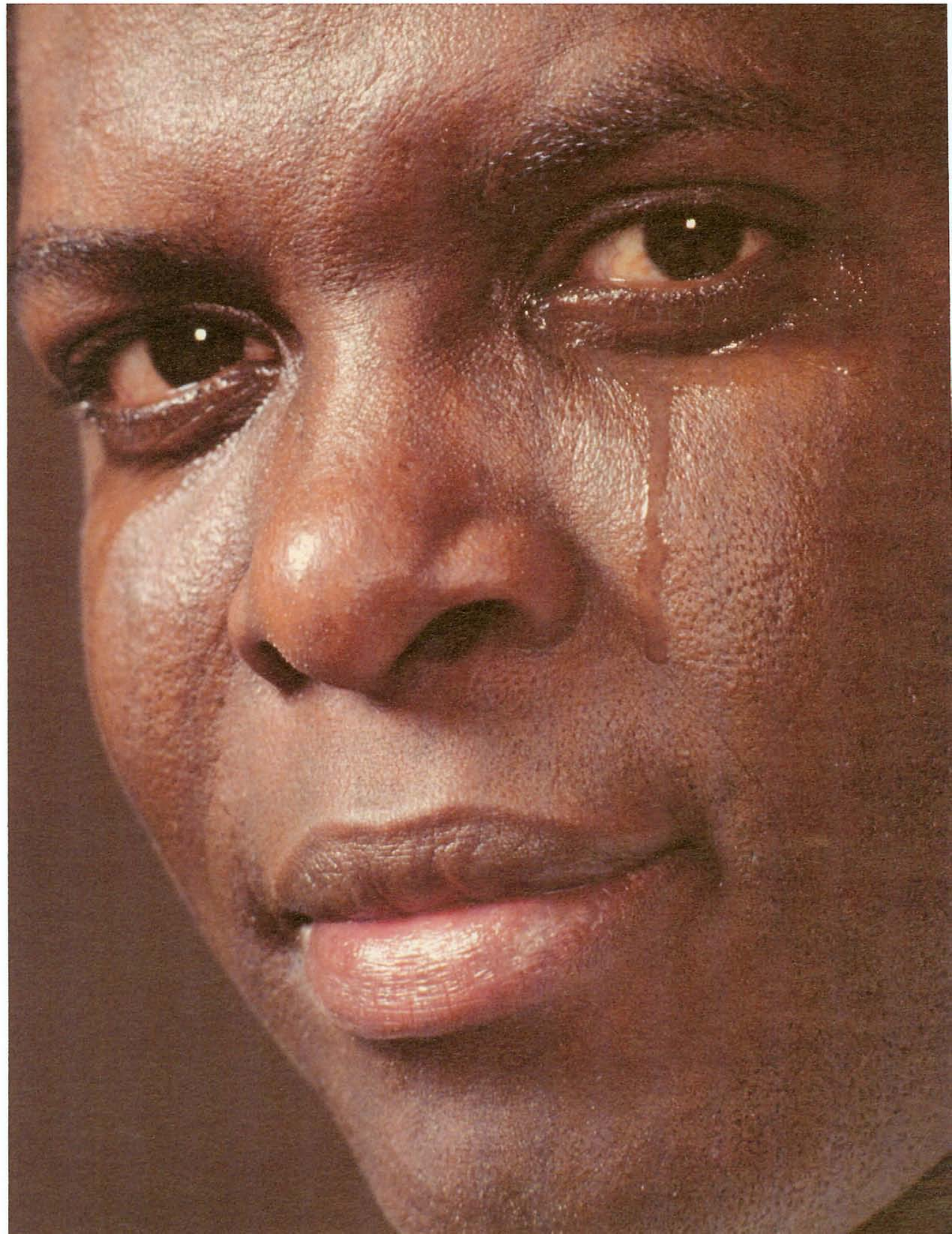
“우리가 보니, 주께서 우리 앞에 있는 설교단 흉벽 위에서 계시더라. 주의 발 아래는 호박색 순금이 깔려 있고, 그의 눈은 불꽃같고 머리털은 그 희기가 깨끗한 눈 같고 그 얼굴은 햇빛보다 더 밝게 빛나고 그 음성은 격한 홍수 소리 같으니 곧 여호와와 음성이라. 이르시되,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살아 있는 자요, 죽음을 당하였던 자니, 아버지와 너희의 증보자니라.”(교리와 성약 110 : 1~4) 이같은 묘사를 기록한 예언자는 목자를 아셨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순교자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증언을 피로써 인봉하면서 그의 간증을 위하여 죽었습니다. 우리는 요셉 스미스에게 목자를 직접적으로 아신 분으로서의 명예를 돌립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자문하여야 합니다. “나는 목자를 알기에 충분할 만큼 사랑을 지니고 배우며, 봉사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구세주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구세주를 알게 되어 그분을 면전에서 대할 때 “내가 주님을 아나이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이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가장 훌륭한 선물

지미 카이리

아버지가 모든 것을
의미하는 그 한 가지를
내게 주시던 그때까지
나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파푸아뉴기니의 포트모르즈비에서 가족 중 세번째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가난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크리스마스와 생일은 내게 있어 많은 아이들이 자랑하면서 생각하듯 그런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우리는 다른 아이들이 선물과 과자를 받는 모습을 지켜 보고 있어야 하는 가장 행복하지 못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적은 급료를 주말에 술마시는 데 거의 다 사용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몹시 궁핍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배고팠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말할 때마다 아버지는 무섭게 화를 내고 어머니가 다쳐서 호느껴 울 때까지 때렸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열심히 우리를 보호하고 돌보시려 하셨는지 모릅니다.

크리스마스는 계속 찾아오고 또 지나갔지만 우리에게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선물과 맛있는 것들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누나와 나는 크리스마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서 이웃집 아이들이 그들을 위해 준비된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고 환성을 지르는 소리를 들곤 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 쓸 수 있거나 가지고 놀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려고 쓰레기장으로 갔던 적도 있습니다. 나는 새롭고 반짝이는 어떤 것, 바로 나를 위한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어느 일요일에 나의 여동생은 사촌과 함께 몇 번 나갔던 새로운 교회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동생은 가족을 만나도록 부부 선교사를 데려왔습니다. 콜 장로와 자매님은 매우 친절하고 겸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참된 교회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토론을 듣고 영이 우리를 인도해 주도록 많이 기도한 후 우

리는 침례받기로 했습니다.

우리 생활은 영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지만 재정적으로는 여전히 궁핍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를 위한 선물이 마련된 진짜 크리스마스에 대한 나의 어린애다운 열망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개종으로 말미암아 나의 아버지는 변화되어 나쁜 습관들을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술도 끊었고 담배도 끊었으며 주말에 가족이 굶도록 버려두는 일도 중지했습니다. 나는 너무 행복했으며 아버지께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내게 사랑을 표현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나는 자라면서 아버지로부터 나에게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마이크로네시아 팜 선교부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교 지역에서 나는 아버지로부터 한 장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애야, 네가 선교사로 봉사하기 때문에 나는 아주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으며 편지 끝에는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선한 사업을 계속하기 바란다.”라고 썼습니다.

나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넘쳤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나에게 그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편지에 답장을 썼으며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사랑해요!”라고 선물을 드렸습니다.

지금 나는 선교부에서 귀환했으며, 아버지는 지부장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나는 아주 특별한 어떤 선물로서 축복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이 펼쳐 보는 그런 선물은 아니지만 영원히 지속되며 살아 있는 동안 매일매일 간직할 수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



우 리 의 크 리 스

넷사왈코요틀 살리나스 베아사에스

래리 원보그 그림

바칼라는 멕시코, 키타나 루주에 있는 작고 오래된 도시입니다. 주민은 약 칠천 명 정도며 시의 한 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는 불과 45분이면 걸어 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집은 야자잎이나 알루미늄판으로 지붕을 덮은 나무 오두막집입니다. 그 도시는 중앙 아메리카의 벨리즈 국경 근처, 카리브해의 한 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아름다운 석호변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바칼라 지부는 1982년 10월에 우리 부모님과 누나와 나, 이렇게 네 명의 회원만으로 조직되었습니다. 당시 나는 열 여섯 살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가진 가정의 밤에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우리 지부가 발전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모두들 대답을 생각하느라고 잠깐 동안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어머니가 열성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도시의 모든 어린이를 위한 파티를 열 수 있지 않겠어요? 많은 어린이들이 파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아이들 모두에게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

일거예요.”

우리 모두 그것을 좋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임무를 지명해 주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소녀들을 위해 형묘 인형을 만들기로 하였으며 누나는 핀야타스(예쁘게 색칠해서 만든 종이 봉지)를 만들어 속에다 사탕을 채워 넣기로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할 동안 크리스마스 캐롤을 연주해 주도록 주립 교향악단을 초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는 남자 어린이들을 위해 덩굴로 비행기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150개의 인형과 150대의 비행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는 파티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어떤 회생을 치뤄야 할 지를 깨닫지 못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깨달아 갔습니다.

후에 가정의 밤에서 아버지는 우리 가족에게 이번에는 예전과 같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특별한 크리스마스 만찬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나는 그것이 아주 싫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어느 오후에 나는 침대 시트와 커튼이 몇 장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습



마 스 파 티

니다. 며칠 후엔 내 옷 몇 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누나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찾다가 어머니가 없어진 시트와 커튼 밑 옷들로 형겁 인형을 만들고 계신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나는 그것도 싫었으며 그것에 관해 어머니와 논쟁을 벌일 뻔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 올수록 나는 그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여야만 하였습니다. 어머니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손바느질로 인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등이 아파지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나까지 단추로 인형 눈을 달아야 하였습니다. 나는 그것도 역시 싫었습니다.

마침내 파티 전날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아이들을 초대하기 위해 집집마다 돌아다닐 수 있도록 흰 와이셔츠를 입고 벵타이를 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파티가 열리던 날, 어린이들은 일찌감치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왔고 또 어떤 아이들은 혼자 왔습니다. 오후에는 더 많은 어린이들이 왔습니다. 주립 교향악단이 와서 크리스마스 찬송가를 연주해 주었습니다. 나는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편야타스를 뜯어 각자 사랑을 조금씩 받아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년과 소녀들은 각각 두 줄로 길게 늘어섰으며 누나와 나는 우리가 만들어 두었던 장난감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는 그 어린이들의 행복했던 표정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행복한 얼굴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희생은 충분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일었던 노여움과 질투는 감사와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어린이들이 하나씩 자신의 선물을 가져 갈 때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물 중 하나인 남에게 봉사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파티를 치른 후 선교사들이 바칼라에 도착하였습니다. 두 달 만에 우리 지부의 회원 수는 네 명에서 스물 다섯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육 개월 후엔 회원 수가 마흔 다섯 명이 되었습니다. 십일 년이 지난 지금, 바칼라 지부는 아름다운 집회소를 가진 와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옳았습니다. 그 첫번째 크리스마스의 정신 때문에 우리 자신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의 축복을 받아들였습니다. □





크리스마스 선물

아마 여러분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절기가 너무 상업적이라고 불평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세주의 정신보다 쇼핑 풍조를 더 많이 강조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물을 주면서 영적인 면이나 유익한 부분을 더할 수 있습니다.

선물이 구세주의 사랑을 나타낸다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가 그리스도에 대해 배웁니다. 여기에 개인적으로나 정원회 또는 반 별로나 가족 단위로 줄 수 있는 선물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이 있습니다. 이 제언이 마음에

안드신다면 여러분 자신의 생각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 가족 각자에게 선물로서 해줄 수 있는 선행, 즉 구두를 닦아 주거나 허드렛일을 해주거나 그들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것 같은 일에 대해 생각한다.

■ 아이들이 반복해서 들을 수 있도록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책을 녹음해 준다.

■ 선물을 줄 아이를 등장시키는 모형 이야기를 써서 책으로 만들어 준다.

■ 가족 각자에게 여러분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편지를 쓴다.

■ 가족 모두에게 일지(또는 단순한 공

책)를 선물한다. 정기적으로 일지를 쓰는 것을 가족 목표로 세운다.

■ 가족에게 씨앗과 그것을 심을 화분을 준다. 누구의 것에서 먼저 싹이 트는지 본다.

지역 사회나

워드 또는 지부에서

■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 연로하거나 앞을 못보거나 또는 병이 있거나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생각한다. 그들에게 크리스마스 준비나 계획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한다. 크리스마스가 끝난 후에는 트리를 치우거나 크리스마스 전구 또는 장식들을 보관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제의한다.

■ 여러분이 사는 곳의 기후에 따라 이웃집의 마당을 돌보거나 눈을 치우거나 집을 수리하는 일을 돕는다.

■ 지역 사회의 어떤 봉사 단체가 가난한 아이들에게 주기 위한 장난감 또는 자전거를 수리하거나 음식 또는 의류를 모으고 있는지 알아본다. 기부되는 품목을 모으고 나누어 주는 것을 돕는다.

■ 지역 사회에서 무료로 열리는 크리스마스 음악회가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본다. 혼자서 갈 수 없는 노약자들에게 데려다 주겠다고 제의한다.

■ 어느 오후 시간에 독신 부모의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제의한다. 그 아이들이 어머니나 아버지를 위한 선물을 선택하거나 만들게 도와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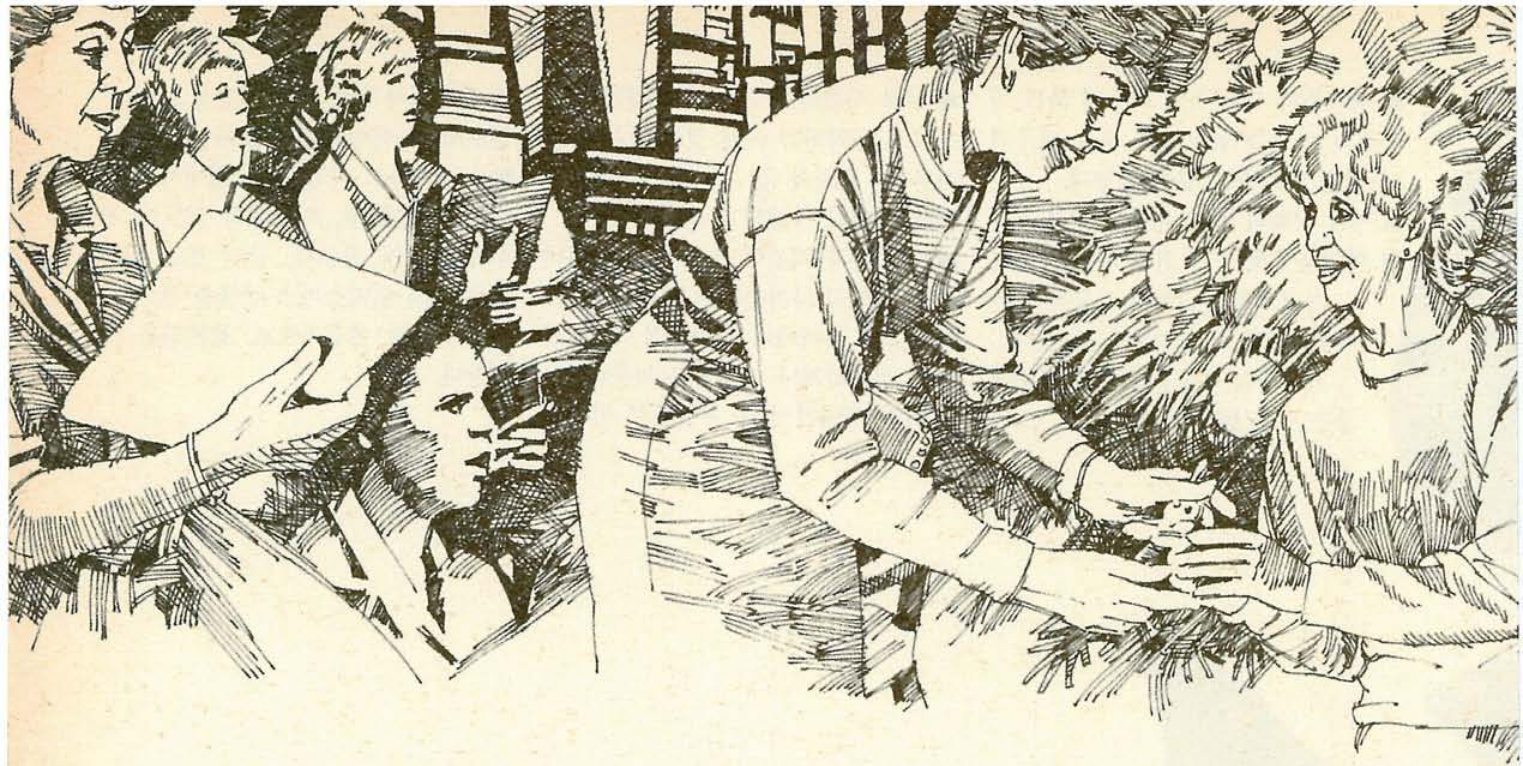
■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아이들

과 떨어져서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돌보아 준다.

■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될, 여러분의 와드나 치부에서 나간 선교사, 군인 또는 학생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만든다.

■ 친구에게 개인적으로 물문경을 선물한다. □





고요한 밤

디앤 워커

크리스마스 전 몇 주간은 예상대로 몹시 바빴다. 이전의 경험을 통해 시간에 무척 쫓기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번 해는 좀 다르기를 바랬다. 나는 미리 잘 계획을 세워서 바쁜 생활 때문에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손상되지 않도록 미리 쇼핑과 크리스마스 준비를 마치게 되기를 원했다.

올해는 실제로 달랐다. 크리스마스 이전에 예년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닥쳐 왔던 것이다. 태버나클 합창단원으로서 나는 해마다 이맘 때는 태버나클 합창단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래 전에 배웠다. 12월은 항상 특별 프로그램과 추가 연습 및 크리스마스 음악회로 꽉 차 있었다. 그러나 올해, 합창단은 이러한 활동들 외에도 크리스마스 다음날 이스라엘로 공연 여행을 떠날 준비도 하고 있었다. 우

리는 여러 달의 특별 연습을 요하는 배우기 어려운 곡을 준비했다. 직장 근무 스케줄과 합창단의 여행이 끝난 후의 직무를 위한 준비까지 포함한 이 모든 일 때문에 나는 크리스마스와 가족을 위한 즐거운 준비를 하는 시간은 아주 조금밖에 쓸 수가 없었다.

홀로 되신 친정 어머니는 내가 그동안 것을 다 완수할 수 있도록 내 생활을 계획하려 애쓰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셨다. 나는 어머니가 더 자주 방문 해주거나 가끔씩 쇼핑을 도와주거나 또는 좀 더 자주 전화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언제나 일요일 저녁 식사에 어머니가 와 주시기를 기대했으며 어머니는 어떤 면에서라도 우리의 관심이 부족한 것에 대해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가 외로우시다는 것과 함께 있어 줄 사람을 간절히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친정 아버

지가 사 년 전에 돌아가신 이래로 어머니의 생활에는 큰 공백이 생겼다. 그분들은 모든 면에서 영원한 동반자였다. 성전에서 봉사하든가 집을 꾸미든가 자녀 및 손자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든가 또는 노래를 부르든가 간에 그분들은 언제나 함께 하셨다. 그리고 나는 이제 다시금 어머니가 지나간 시간들과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즐거운 크리스마스들을 회상하고 계심을 알았다. 수많은 크리스마스 프로그램과 가족 모임을 두 분이 함께 노래하며 사랑과 음악으로 가득 채우셨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는 혼자자 되었다.

동생과 나는 크리스마스를 위해 어머니가 트리를 세우고 집을 장식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우리는 어머니를 위해 대부분의 쇼핑을 해주었지만 크리스마스를 약 두 주 앞두고, 어머니는 전화를 해서 나의 바쁜 일정에 방해가 되는 것을 사과하며 오후 시간에 쇼핑



을 하도록 한 번 데려가 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셨다. 어머니는 우리가 이미 구입했던 것들 외에도 직접 선물로 쓸 몇 가지를 더 골라 사고 싶어하셨다. 계속되는 나의 딱딱한 일정에 변화를 준다는 것은 즐겁고 반가운 일이었다. 우리는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멋진 오후 시간을 가졌다. 그 직전까지 누리지 못했던 크리스마스의 기쁨과 정신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

우리가 함께 오후를 보낸 며칠 후 어머니는 감기에 걸리셨다. 우리는 매우 염려가 되어 어머니 집에서 계속 가까이 지켜 보았다. 어머니는 우리 집과와 계시려 하지도 않고 동생 집에도와 계시려 하지 않으면서 곧 나올거라고만 하셨다. 어머니는 그토록 바쁜 시간에 아파서 우리에게 짐이 된 것을 미안해 하셨다. 며칠간 몹시 앓으신 후 어머니의 건강이 나아지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는 밤새워 간호하는 일을 다소 줄였다. 어머니는 크리스마스까지는 괜찮아질거라고 말씀하셨다. 내 생각에도 그렇게 될 것처럼 보였다.

어머니가 아프시던 2주 동안 내 생활의 속도와 짐은 점점 더 커지지만 할 뿐이었다. 크리스마스 삼 일 전에 합창단은 두 번의 크리스마스 음악회를 막 끝냈으나, 나는 크리스마스를 위해 쇼핑도 한번 더 해야 하고 사무실에서도 마무리지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다. 이스라엘로 떠날 날도 4일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그날 오후에 남편이 내 사무실로 들어와 문을 닫고 내게 어머니가 바로 한 시간 전에 돌아가

셨다고 말했다. 정신이 멍해진 나는 남편이 한 말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다. 남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유는 말하지 않고 다만 그 놀라운 소식만 전해 주었다. 바로 몇 분 전까지 그토록 중요해 보였던 모든 일들이 하찮은 일들이 되어 버렸다. 나는 시간이 멈추고 내가 일종의 진공 상태 속에 떠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다음 이틀 동안 동생과 나는 그저 기계적으로 필요한 행동만 취하며 어머니의 장례식을 준비했다. 장례식은 크리스마스 다음날이었다. 바로 그날 합창단은 이스라엘로 떠날 것이다. 가족과 친구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사랑과 관심을 보여 주었으며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현실을 인정하려고 발버둥쳤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내가 이스라엘 여행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녁 늦게 여행 일정이 내가 뒤에 가서 며칠 후에 합창단과 합류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는 전화를 받았다. 나는 나를 위해 친구들이 보여 준 친절과 노력에 깊이 감사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 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를 위해서도 크리스마스가 가능한 한 어느 때와 같기를 바랐다. 우리는 예전처럼 크리스마스 이브의 가족 만찬과 크리스마스 날을 위해 계속 준비했지만 무척 공허하고 외롭게 느껴졌다. 그 해의 크리스마스는 어느 때의 크리스마스라 똑같을 수가 없었다. 우리 모두 특히 아이들은 굉장한 외로움을 느꼈으며 나의 어머니가

왜 크리스마스 절기에 돌아가셨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문에 장례식 직전까지 고인의 모습을 보는 것을 미루도록 권고받았지만 장의사들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전날의 아무 때나 장례식장에 와서 어머니와 잠시 시간을 갖도록 해주었다. 크리스마스 밤에 우리는 만찬을 마친 후 아이들이 선물을 갖고 놀도록 두고 장례식장에 갔다.

우리는 조용히 관 주위에 둘러서서 성전 로브를 입은 아름다운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는 너무나 평온하고 행복하게 보였다. 그 방에는 사랑과 평화의 영, 심지어는 행복과 기쁨의 영까지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최근에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일어났던 영광스러운 재회를 그려 보았다. 가만히 귀기울인다면 다시금 오래 전의 그 거룩한 밤에 그분들이 그랬던 것같이 천사가 노래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처럼 느꼈으며 어머니와 아버지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하늘 합창대와 합쳐지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 나는 그들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아기 잘도 잔다”라고 노래하는 것이 들리는 것 같았다.

그곳에서 있을 때 내가 간구했던 이해력과 위안이 오는 것처럼 느껴졌으며 나의 세상적인 근심은 멀리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 고요한 밤에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하늘의 평화를 맞본 것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렸다. □

성약의 여성

기쁘다, 구주 오셨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누가복음 2:10) 온 세상이 우리 구세주의 기쁜 탄생을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이 기회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기쁨과 의미를 가져다 주시는 방법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는 성약을 통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누가복음 1:38)라고 했을 때, 사실상 그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행하겠다는 약속 또는 성약을 맺은 것입니다. 자신의 성약 때문에 그녀는 어린 갈릴리 소녀로서는 결코 생각해 볼 수 없었던 인생의 기쁨과 의미를 맛보았습니다.

성약을 지키는 것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맺는 첫번째 성약은 침례 성약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뉘어지며 그분을 따르기로 약속하며, 성찬을 취함으로써 이 성약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영은 우리가 고쳐 가운데서 평화를 느끼며 슬픔 가운데서 기쁨을 갖도록 인도해 줍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맺는 성약은 더 큰 지식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가나의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약을 지키는 기쁨을 발견한 사람들 중의 하나입니다. 1989년에 가나 정부는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모리 형 그림

말일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함께 모이는 것을 금했습니다. 교회 회원에 대한 박해도 심했습니다. 그러나 파우스티나 오투 같은 자매들은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시기에 사는 것이 행복해요. 우리는 이곳의 개척자들이라는 얘기를 항상 들었죠.”라며 더욱 성숙한 신앙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교회 회원들은 그들의 충실함을 보여 줄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가족 예배를 가졌으며 경전을 공부하고 교회 역사를 읽었습니다. 가나, 사왓지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엠마 트웨러 보어 코두아 자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활동적인 자매들을 계속 방문했으며 그들은 모두 훌륭한 영을 지니고 있었다. ...나는 내 인생의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그리고 더 훌륭하게 금식하고 기도하려고 노력했다. 나의 신앙은 점점 더 커졌다. 전에는 늘 나를 짜증나게 하던 일들도 이제는 더 이상 짜증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 노여움과 좌절감도 더 이상 내게 전과 같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은 이 어려운 시기 동안 내가 받았던 축복

들 중의 하나이다.” 교회 모임에 대한 제한 조치는 1990년 12월에 해제되었습니다.

• 여러분은 언제 자신이 맺은 성약을 지킴으로써 기쁨을 느꼈는가?

우리는 성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침례 성약을 맺을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두 가지 큰 계명을 지킬 것도 약속합니다. (모사이사서 18:8~9 참조) 이러한 성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젊은 여성은 자신이 비판적인 태도를 키워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영적인 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성찬을 취하면서 주님께 일주일간 가족 중의 누구도 비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자매는 매주 새로운 결심으로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영이 그녀와 함께 해주기를 간구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으나 그녀는 오랜 시간을 들인 끝에 결국 이 약점을 극복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이제 그녀를 결코 남의 험담을 하지 않는 사람의 실례로 돕니다.

하나님과 맺은 성약이 우리 인생의 틀이 될 때 우리의 언행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내적인 평화와 기쁨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 여러분이 맺은 성약은 어떻게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해력을 증가시켜 주었는가? □



조셉 필딩 스미스

온화한 사도



레온 알 하트슨

이 세상이 지니고 있는 질병에 대한 치료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평화와 세속적인 번영 및 영적인 번영, 그리고 하나님 왕국의 궁극적인 상속을 바라는 우리의 소망은 바로 회복된 복음 안에서만,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제10대 대관장이었던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은 1972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의 간증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했다. 그리고 세 달 후에 그는 유명을 달리하였다.

스미스 대관장의 간증은 바로 자신이 사랑하였던 주님에 대한 평생에 걸친 봉사를 통해 확립된 것이었으며 또한 교회와 관련하여 조상으로부터 물

어린 시절에 조셉 필딩 스미스는 아버지로부터 물문경을 한 권을 받았다. 열 살이 되기 전에 그는 물문경을 두 번이나 읽었다.

려받은 특별한 유산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의 부친은 1901년에서 1918년까지 교회 대관장으로 봉사하였던 조셉 에프 스미스였으며, 또한 조부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형이었던 하이람 스미스였다.

“어머니의 무릎에서부터 교육을 받음”

조셉 필딩 스미스는 1876년 7월 19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조셉 에프 스미스와 줄리아나 램슨 스미스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주님에 대한 그의 헌신적인 봉사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저는 어머니의 무릎에서부터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구속주를 사랑하라는 교육을 받았습니다.”라고 그는 훗날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할머니이신 매리 필딩 스미스(하이람 스미스의 부인)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살았던 가장 훌륭한 여성 가운데 한 분이셨던 할머니를 뵈지 못했다는 것이 저는 항상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의 훌륭한 친동생이었던 마리 톰슨 이모 할머니를 알아 소년 시절에 할머니댁을 방문하여 그분의 무릎 위에 앉아 할머니께서 들려주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자주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때의 경험을 제가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어린 시절부터 조셉은 경전을 읽기로 결심하였다. 동생인 에디스의 말에 따르면 조셉은 열 살이 되기 전에 물문경을 두 번이나 읽었다고 한다.

“제가 너무 어려 아른 신권도 갖지 못하는 꼬마였을 때, 아버님께서 물문경을 한 권 저의 손에 쥐어 주시면서 읽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이 니파이인의 기록을 받아 제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마음에 새겨둔 구절이 몇 있었는데 아직도 그것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스미스 대관장은 회상한다.

학자이며 지도자

이와 같이 어려서부터 경전을 읽은 덕분에 조셉 필딩 스미스는 평생에 걸쳐 복음을 연구하고 경전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 수 있었다. 그는 49년간을 교회 역사가로 봉사하였으며, 그분이 지냈던 교회 역사 및 교리에 대한 특출한 지식을 교회에서 널리 인정받았다. 그는 자신의 첫 번째 저서를 1901년에, 그리고 마지막 저서를 1970년에 출판하였다. 69년의 세월 동안 그는 총 25권의 책을 저술하였으며 그 중의 일부 저서는 경전을 연구하는 사람들과 교회 역사에서 주옥 같은 교전이 되었다.

조셉 필딩 스미스는 역사가 및 학자로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받은 축복사의 축복 가운데 다음과 같은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다. “여러 형제들과 함께 평의회에 앉아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그대가 행해야 하는 임무이니라.” 1910년에 33세의 나이로 그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결원을 채우도록 부름을 받아, 60여년 이상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사도로 봉사하였다. 그는 19년 동안을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으며, 그중 5년 동안은 대관장단 보좌를 겸직하여 봉사하였다. 그리고 1970년 1월 23일 93세에 교회의 대관장으로 성임되고 성별되어, 1972년 7월 2일 95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대관장으로 봉사하였다.

..부드러운 마음..

스미스 대관장이 다른 것과 타협하

지 않고 주님의 율법과 원리를 수호하였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그를 엄격한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하였으나, 그러한 것이 그의 참된 성품은 아니었다. 그와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은 스미스 대관장이 다른 사람들을 깊이 배려하고 또 동정심과 사랑,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친구들은 그를 이렇게 표현하였다. “만일 제가 제 친구들 중 어떤 한 사람에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 조셉 필딩 스미스에게로 가겠습니다.”

1956년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이 그에게 감사의 글을 적어 보냈는데 그 중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우리는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그분의 부드러운 마음씨와 또 불행과 고난에 빠진 사람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는 모든 성도를 사랑하며 죄지은 사람에 대한 기도를 그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뛰어난 분별력을 지닌 분으로 다음의 두 가지 기준만을 가지고 최종 결정을 내립시다. 대관장단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최선의 길인가?”

..친근한 사람..

진지하고 학구적인 성품 이외에도 스미스 대관장에게는 친근한 면들이 있었으며, 또한 유유하며 감각도 지니고 있어 이를 자주 그리고 즉흥적으로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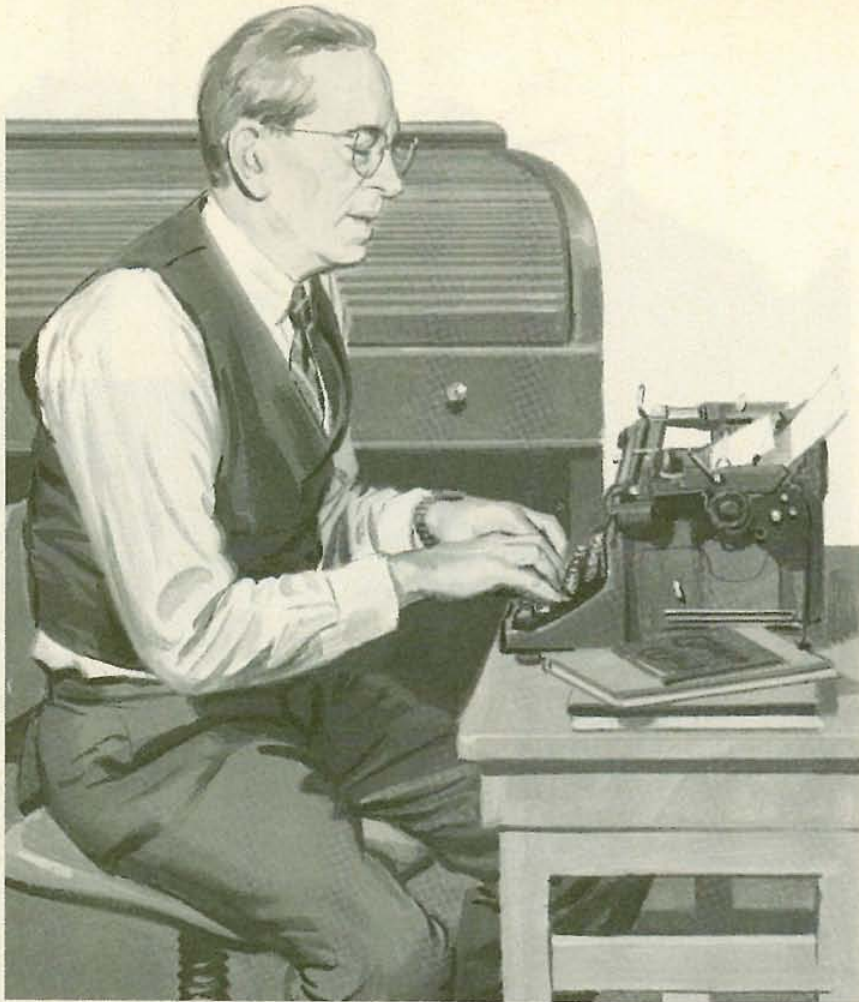
용하였다.

예를 들어 한번은 스미스 대관장이 캘리포니아에서 대회를 마치고 돌아올 때, 자신이 탄 올리브로 도시락 가방을 가득 채워 가지고 온 적이 있었다. 이 귀한 물건에 흐뭇해 하던 그는 항상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기 때문에 한 형제에게 “나무에서 갓 딴 올리브를 맛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이 의심이 없었던 희생자는 먹어 본 경험이 없었기에 싱싱한 올리브를 한 입 꼭 깨물었다. 그 씹씹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 형제의 표정이 일그러지자 스미스 대관장은 모르고 있었다는 듯이 물어보았다. “왜 그러십니까? 나쁜 것을 드셨나요? 여기 좋은 것이 있으니 하나 더 드셔 보시지요.”

..자상한 남편..

이러한 교회 활동 속에서도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은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였다. 1898년 4월 22살에 그는 루이 에밀라 셔틀리프 자매와 결혼을 하였다. 결혼한 지 1년 뒤인 1899년 5월 12일 그는 아버지에게 칠십인으로 성임되어 다음 날 선교 지역으로 떠났다. 물론 당시에 스미스 장로가 보인 개인적인 희생은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것보다 더욱 힘든 것이었다. 그는 부름을 받아들여 영국의 노팅햄 지역에서 이 년 동안 봉사한 후, 1901년에 귀환하였다.

귀환하자마자 조셉은 교회 역사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어, 그곳에서 생애



조셉 필딩 스미스는 교회 교리와 역사에 관한 특출한 지식가로 잘 알려져 있는 분이었다. 그는 첫번째 저서를 1901년에, 그리고 마지막 저서를 1970년에 출판하였다. 그는 낡은 수동 타자기를 이용하여 부지런히 저술을 하였다.

의 많은 부분을 보내게 되었다. 1907년에 그는 다른 책임을 맡았는데 바로 유타 계보 협회의 서기로 지명된 것이었다.

첫번째 아내 루이와의 십 년에 걸친 결혼 생활 동안에 딸 둘이 태어났으며, 그가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부름받기 두 해 전에 아내를 잃었다.

1908년 11월 2일 그는 에셀 조지아나 레이놀즈 자매와 결혼하였는데 그녀는 다섯 아들과 네 딸을 낳았으며 조셉과 29년을 함께 살다가 1937년 8월 26일에 세상을 떠났다.

스미스 장로는 당시에 태버내클 합창단의 단원이며 유명한 성악가인 제

시 에반스 자매와 1938년 4월 12일 결혼을 하였다. 천성이 명랑하고 쾌활하였던 그녀는 스미스 장로의 곁에서 33년 동안 그를 정말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으로 정신적으로 받들고 보살펴 주었다. 그녀는 생존해 있는 동안 남편이 교회 대관장이 되는 것을 보았으며 또한 교회 일로 그와 함께 많은 지역을 여행하면서 바쁜 일정을 함께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성도들을 만났다. 그녀가 1971년 8월 3일 심장병으로 죽자 수백만의 사람들이 스미스 대관장의 외로움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다.

그 어려웠던 시기에 스미스 대관장

의 보좌로 봉사하였던 해롤드 비리 부 대관장은 대관장의 상실감에 대해 동정심을 표하였다. 그러자 스미스 대관장은 주님께서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힘을 주실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형제님도 알고 있듯이 나는 전에도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하였다.

“내가 아는 가장 부드러운 사람”

아마도 한 개인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과 함께 살았던 사람일 것이다. 1932년, 스미스 장로의 아내 에셀은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그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말해 줄 것을 부탁하셨는데, 저는 종종 만일 그분이 돌아가신다면 사람들이 ‘그분이 매우 훌륭하고 성실하며 정통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이 그분에 대해 알고 있는 대로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분과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은 아주 다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은 인생의 가장 커다란 소망이 자신의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며,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남편이요 아버지로, 자신을 잊고 이 일을 이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칭얼거리는 아이를 달래며 아이들에게 침대 옆에서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며, 아무리 바쁘거나 피곤해도 밤늦게까지 때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복잡한 학교 숙제를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누가 아

프기라도 하면 그 고통받는 사람을 곁에서 극진히 보살피고 시중을 들어줍니다. 아버지가 계시면 모든 병이 낫는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울면서 찾는 사람이 바로 아이들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손으로 상처난 곳을 묶어 주고, 또 자신의 팔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못을 범하였을 때,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일을 함으로써 그들이 행복해질 때까지 자신의 목소리로 그들을 부드럽게 타이릅니다.

“제가 알기에 그분은 가장 부드러운 분입니다. 그분은 만약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공정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면 거리가 아무리 멀지라도 찾아가 사랑이 담긴 말과 친절한 행동으로 그 상처 받은 마음을 풀어 줍니다. 그분은 집으로 찾아오는 젊은이들을 반갑게 맞아주시며 스포츠라든가 또는 그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주제로 그들과 토론할 때 가장 행복해 하십니다. 그분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즐겨 하시며 상황에 맞는 유우머를 사용하여 웃음을 나누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건전한 활동에 참여하십니다.

“또 그분은 이기심이 없고, 불평하지 않으며, 사려깊고, 생각을 많이 하시며, 동정심이 많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활을 하나의 기쁨의 터로 만들기 위해 힘 닿는 데까지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이 그분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스미스 대관장과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성악가였던 그의 아내 제시는 종종 둘이 함께 노래를 불러 성도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1971년 그녀가 사망하자 그녀의 쾌활하고 사랑스러운 성품을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제시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제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스미스 대관장의 한 아들도 이러한 아버지의 성품과 스미스 대관장이 지닌 커다란 내적인 힘의 근원을 잘 알고 있다.

“아버님께서 ‘만일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짊어지신 시련과 환난, 그리고 죄를 이해할 수만 있다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자녀인 저희들은 자주 들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눈에는 눈물이 고이곤 하였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아버님의 서재에서 함께 앉아 있을 때, 당신께서 깊은

명상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정적을 깨뜨릴 수가 없어서 망설이고 있는데 아버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야, 내가 성전에서 총관리 직원들을 만나던 지난 목요일에 네가 함께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네가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담긴 그들의 간증을 들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셨는데 눈물이 뺨을 흘러 웃웃으로 떨어졌습니다. 한참 후에 머리를 약간 드신 채, 앞뒤로 흔드시며 ‘제가 참으로 나의 주,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세상과 교회가 결코 나이를 먹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스미스 대관장도 자신의 임무를 멈추어야 했다. 대관장단에서 봉사하는 동안 그는 즐기 차게 여행을 하고 복음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나누었다. 대관장으로 있는 동안 영국의 맨체스터에서 첫번째 지역 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유타주의 옥든과 프로보 성전이 헌납되었으며, 아시아 최초로 일본의 동경 스테이크가 조직되었고 또 월요일이 가정의 밤을 갖는 날로 지정되었으며 대만 선교부가 개설되었다. 그리고 교회의 사회봉사과가 재조직되었으며 이탈리아 북선교부가 개설되었다. 이외에도 주일학교가 재조직되었으며, 교회 국제교류부가 설립되었다.

마지막으로 한 대회 말씀에서 이 친절하고 사랑이 가득한 주님의 좋은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복음을 가르치며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참으로 스미스 대관장은 자신의 온 생애를 바로 그 가장 중요한 일에 헌신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온 생애를 통해 복음의 원리를 연구하고 깊이 생각해 왔으며, 주님의 율법에 따라 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주님과 그분의 사업, 그리고 지상에서 그분의 목적을 널리 전하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커다란 사랑을 저의 마음속에 지니게 되었습니다.” □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의 약력(1876~1972)

연도	나이	일어난 일
1876년	-	7월 19일 :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태어남.
1897년	21세	장로로 성임됨.
1898년	22세	4월 26일 : 루이 에밀라 서틀리프 자매와 결혼.
1899~1902년	22~24세	영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함.
1901년	25세	교회 역사 사무실에서 서기로 일함.
1906년	30세	교회 역사가 보조가 됨.
1908년	32세	첫번째 아내 루이 사망. 11월 2일 : 에셀 조지아나 레이놀즈와 결혼.
1910년	33세	4월 7일 : 그의 아버지에 의해 사도로 성임됨.
1919년	43세	솔트레이크 성전장의 보좌가 됨.
1921~1970년	44~94세	교회 역사가로 봉사함.
1934년	57세	계보 협회 회장이 됨.
1937년	60세	두번째 아내 에셀 사망.
1938년	61세	4월 12일 : 제시 엘라 에반스와 결혼.
1939년	63세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에 유럽을 방문하여 비유럽 출신 선교사들의 철수를 지시함.
1945년	68세	솔트레이크 성전장이 됨.
1951년	74세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 됨.
1955년	79세	극동 지방을 여행하여 4개국을 복음 전도를 위해 헌납함.
1965년	89세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의 보좌가 됨.
1970년	93세	교회 대관장으로 지지됨.
1971년	94세	영국의 맨체스터에서 교회의 첫번째 지역 대회를 감리함. 세번째 아내 제시 에반스 스미스 사망.
1972년	95세	7월 2일 :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사망.

참고 서적

1. 조셉 필딩 맥콩키, “조셉 필딩 스미스”, 교회의 대관장, 레오나드 제이 애링턴 편집,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레트 출판사, 1986년.
2. “조셉 필딩 스미스”, 몰몬 백과 사전, 뉴욕 : 맥밀란 출판사, 1992년.
3. “조셉 필딩 스미스”, 영원히 설 주님의 왕국 : 교회사 요약, 솔트레이크시티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1980년.
4. 브라이언트 에스 힝클리, “조셉 필딩 스미스”, 임프르브먼트 이라, 1932년 6월호, 459쪽.

주님은 살아 계시며

…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자
나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샬리 제이 오데커크



어느 날 우리는 새벽반 세미나리 도중에 구세주를 기억하는 짧은 예배 모임을 가졌다. 사회를 보는 소녀가 구세주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전하고 나서 우리들에게 간증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교사이신 프래트 형제가 간증을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개개인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들 각자가 알아야 한다고 말씀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간증을 듣고 있는 동안, 내 스스로가 구세주에 대한 간증을 정말 지니고 있는지를 확신하지 못하게 되었다. 나는 항상 교회 모임과 세미나리에 참석하고 있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며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이 나의 개인적인 구세주, 곧 나의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진정한 의미로 알지는 못했던 것이었다.

나는 그날 아침 세미나리에서 형식적으로 그저 몇 마디 말만 했을 뿐이었다. 그 후에 나는 여러 날 동안, 그날의 일을 생각하고 스스로 깨닫기 위해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다. 나는 교회가 참되며 내가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따뜻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이 응답에 긍정적인 느낌을 갖고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간증과 교회의 표준에 따라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구세주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몇 년이 흘러 집을 떠난 후, 나는 내게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깊은 상처를 남겨 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다. 나는 인도를 받는 데 필요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잃고 방황하며 외로움에 휩싸이게 되었다. 나는 때때로 아침 기도를 그만두기도 하였으며 최근에는 더 이상 교회에 다니지 않겠노라고 결심을 하기도 하였다.

내 인생의 바로 그때에 나의 가정 복음 교사인 댄 형제와 테리 형제가 방문을 하였다. 나는 그날 교회에 참석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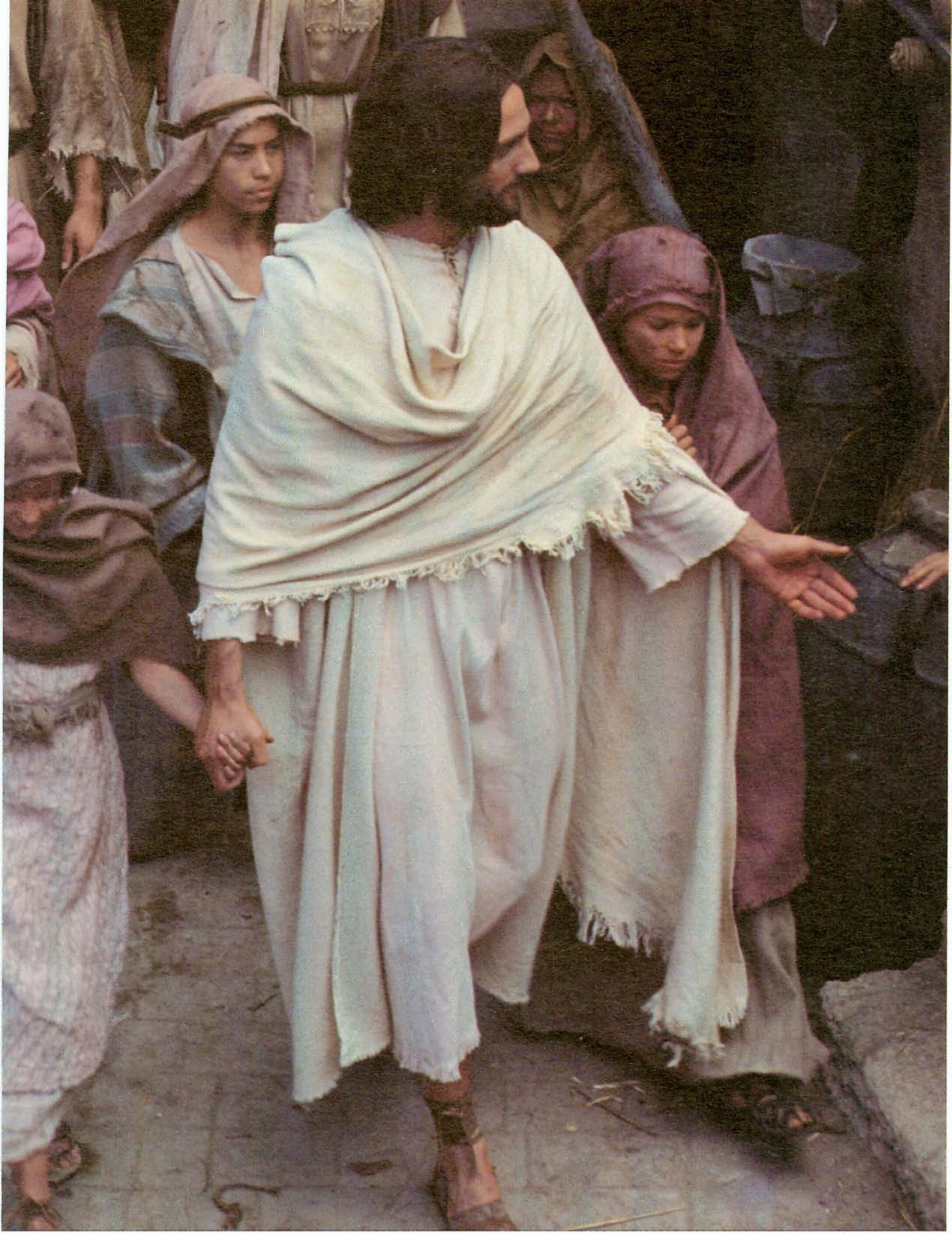
않았고 사실 이에 대해 적절한 변명거리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방문에 조금은 당황하였다. 영이 그들에게 무엇인가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어서인지 그들은 내게 특별히 도움이 될 만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간곡히 부탁하였다. 그들은 잠시 동안 머무르다가 떠날 시간이 되자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그들이 떠난 뒤 잠시 동안 영이 남아 있었으며 나는 이전보다 훨씬 마음이 밝아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 영이 계속되기를 바랐다. 나는 내게 남아 있던 신앙을 모아 기도를 드렸다. 얼마 동안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나 기대 같은 것은 갖지를 않았다. 그러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자 검은 구름이 걷히고 놀라운 힘을 가진 따뜻한 그 무엇이 내 마음속으로 오는 것을 느꼈다. 완전한 사랑과 이해가 방안에 가득하였다. 나는 구세주께서 지니신 사랑의 깊이와 힘에 굉장히 놀랐다. 그분께서는 나에게 대해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주님께서 내가 지니고 있었던 문제들에 관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오해나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갑자기 몇 개의 낱말이 마음속에 떠올라 기분이 한결 좋아질 수 있었다. 그리고 구세주께서는 내게 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나는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과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들 각자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 우리가 그분들을 믿는 신앙을 행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극복해야 할 문제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나는 구세주께서 도움을 주실 준비를 갖추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이후로 완전히 혼자서 내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한 적이 없었다. 나는 이제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내 구주 살아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

1993년 12월호 성도의 빛 32페이지에 실린 샬리 제이 오데커크의 글은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베들레헬 으로 가는 길

디 캘리 옥튼

최근에 나는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헬까지 갔던
길을 따라 걸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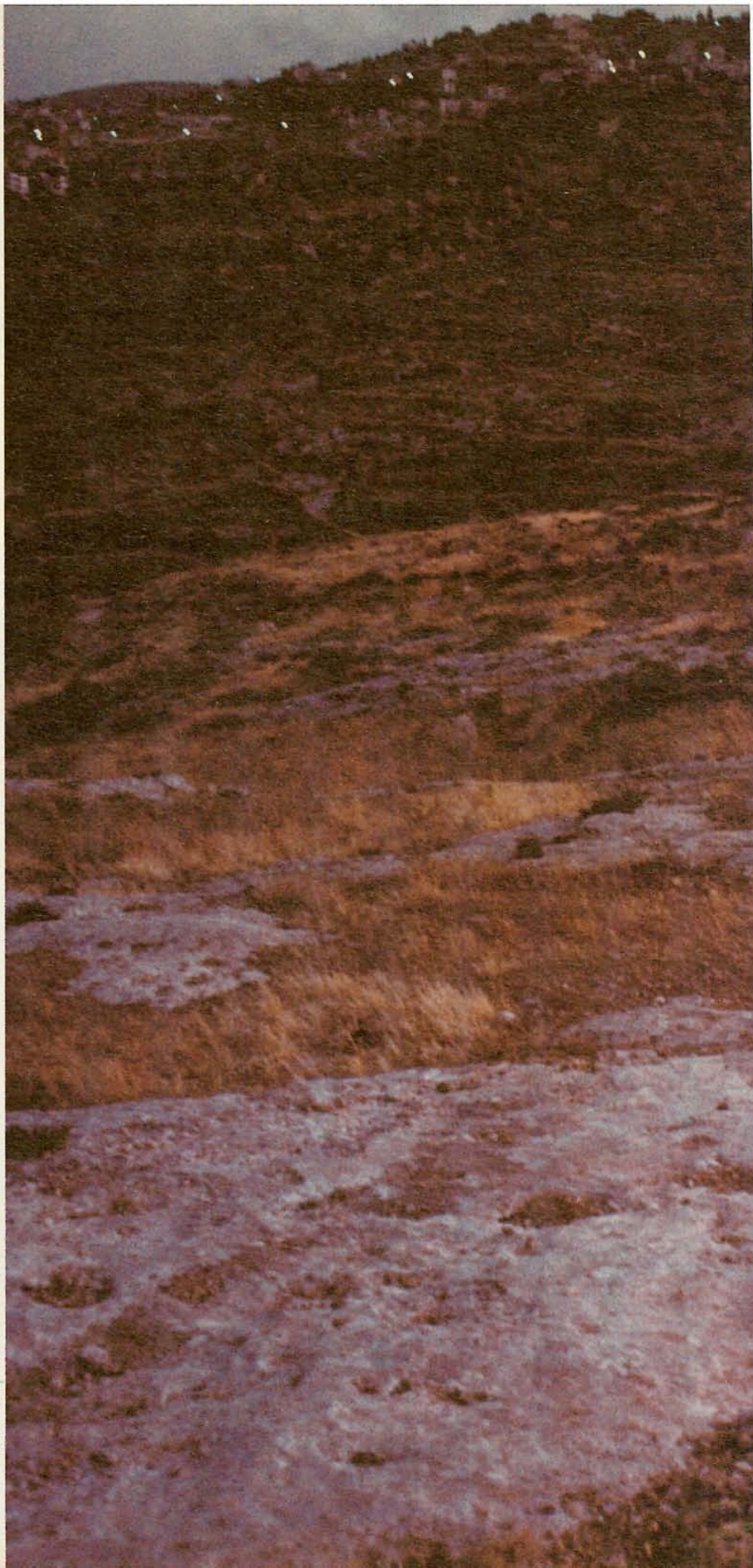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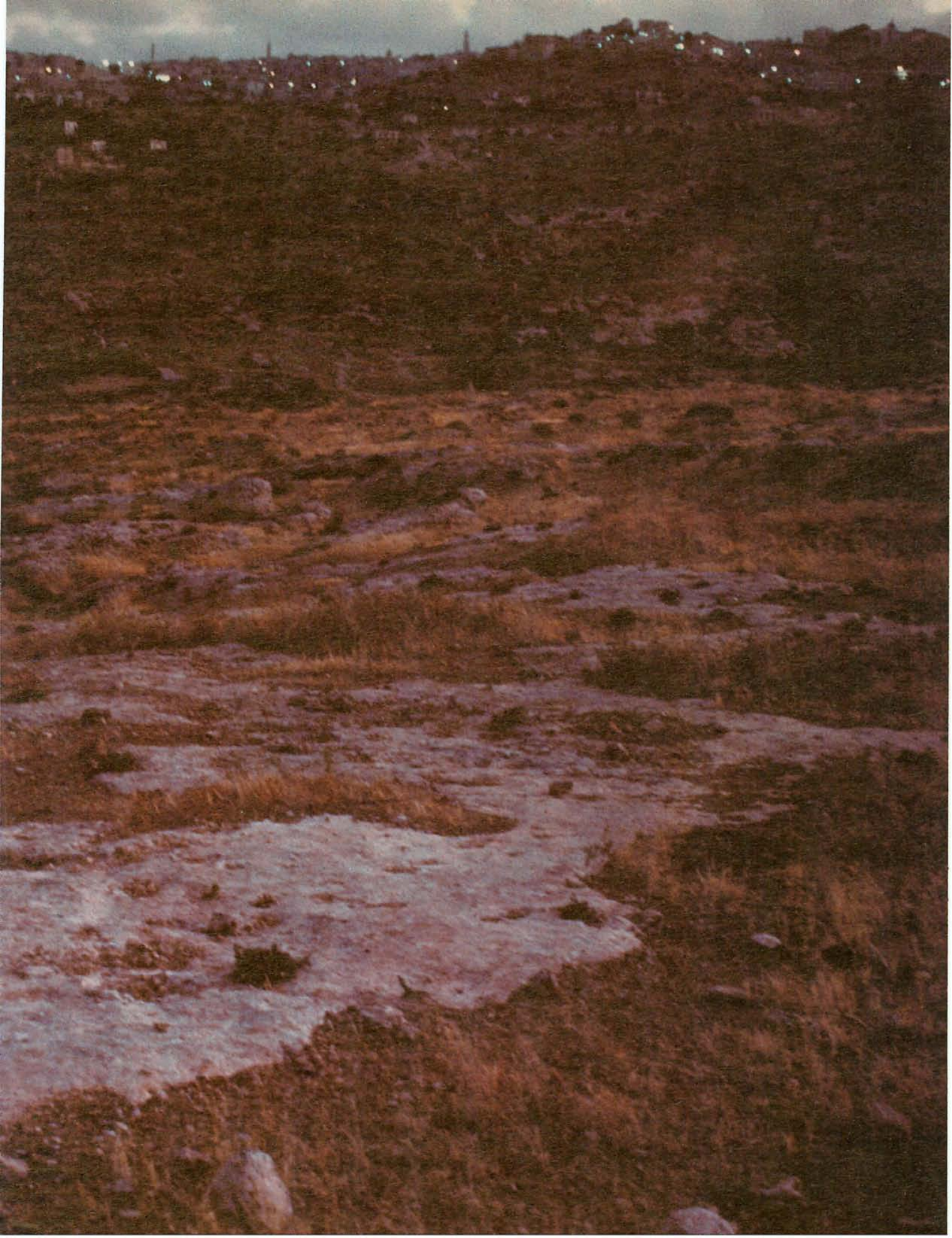
세기 동안,
유대인들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의 왕국이 영원히 다윗의 위
에 세워지리라는 이사야의 메시아에
관한 위대한 약속이 성취되기를 고대
하고 있었다. (이사야 7:14; 9:6~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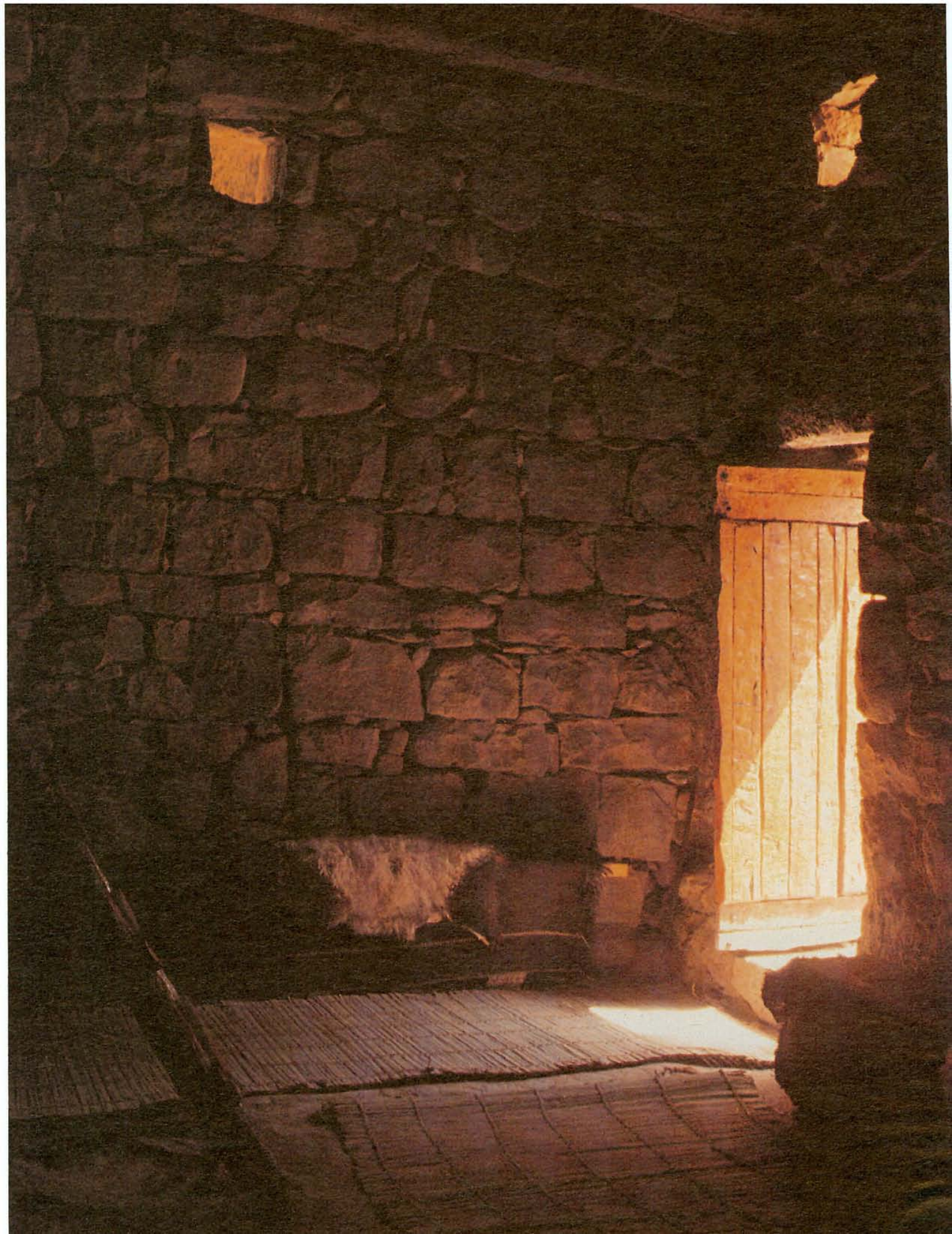
천사 가브리엘이 예언의 성취, 곧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탄생을 알
리기 위해 나타난 마을이 바로 갈릴
리 나사렛이었다. 가브리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필멸의 세상에
있는 아들의 아버지가 되고 또 마리

.....

베들레헬 외곽에 있는 목자들의.
히브리어로 베들레헬은 “떡으로
지은 집”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생명의 떡”
(요한복음 6:35)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지로서 적절한 지명이다.
그리스도의 조상인 다윗 또한
이곳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아버지의
양을 돌보며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라고 노래하였다.







갈릴리에 다시 세워진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시대의 집(왼쪽) 이와 같은 방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그녀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임을 알려 주었다.

이스라엘 골짜기(맨 오른쪽)요셉과 마리아는 아마도 나사렛에서 남동쪽으로 약 16킬로미터 정도를 걸어 이 골짜기를 지나갔을 것이다. 성경에 나타난 초기의 많은 사건들이 이곳에서 일어났다. 곧 기드온이 삼백 명을 이곳에서 뽑았으며, 사울이 전장에서 죽었으며, 다윗이 왕이 되었고, 엘리야가 아합과 이사벨에 대해 이곳에서 예언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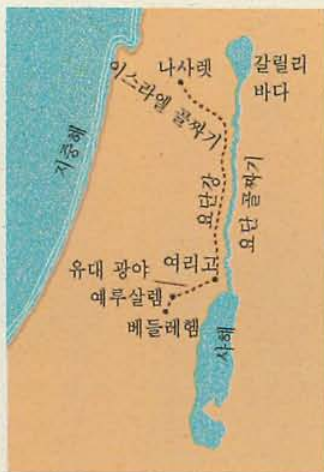
요단 골짜기로 가는 길(오른쪽 아래). 요셉과 마리아는 아마도 이 골짜기에서 남쪽으로 약 80킬로미터를 걸었을 것이다. 그들이 간 길은 요단강과 평행한 길로서 이 사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골짜기의 중간 부분을 지나는 지구대와 만나게 된다. 예수는 훗날 어리고 동쪽의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다.



사진 촬영 : 디 켈리 옥은



사진 촬영 : 디 켈리 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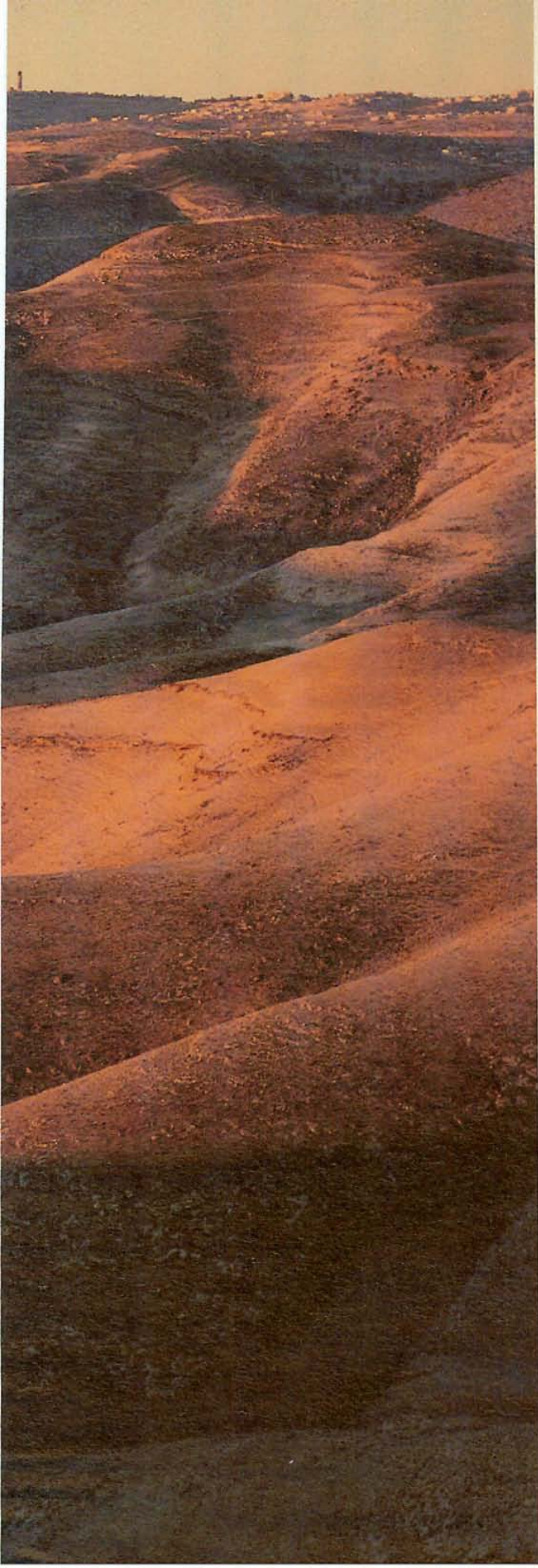
아가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누가복음 1:35)

메시야가 나사렛에서 태어나(니파 이일서 11:13~21)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우리라는 것은 이미 예언되어 있었는데(마태복음 2:23), 예수가 나사렛에서 잉태되어 그곳에서 성장함으로써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러나 또 다른 예언이 성취되어야

했다. 오리라 약속된 메시야가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었다.(미가 5:2 및 요한복음 7:42 참조) 마리아는 자신의 첫번째 아이를 낳으려는 참이었으며 또한 특별히 어머니와 가족들이 가까이 있는 곳에서 해산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거의 160킬로미터나 떨어진 베들레헴에서 메시야가 태어나야 한다는 예언이 성





취될 수 있었을까? 로마의 총독이 세금 징수의 목적으로 전국 방방 곡곡에 있는 사람들을 조상들의 고향으로 다시 돌려보내 인구 조사를 시행하기로 한 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헬을 향해 남쪽으로 길고 험난한 여행을 해야만 했다. 우리는 경전에서 그들의 여행에 관해 단 한 구절만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헬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누가복음 2:4~5)

그들은 아마도 다음의 두 가지 경로 중 하나를 택하여 나사렛에서 베들레헬까지 여행을 하였을 것이다. 첫번째 경로는 남쪽으로 가서 이스라엘 골짜기를 지나 사마리아의 언덕들을 넘어 유대로 들어가는 길로 직선

.....
 유대 광야, 지평선 위에 감람산이 있다. (왼쪽) 여리고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27킬로미터이며 1,070미터를 올라야 하는 험난한 길이다. 예수님은 훗날 이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였다.

유대 광야에 있는 켈트 샘(맨 오른쪽). 요셉과 마리아는 아마도 황량한 광야를 지나며 중간 중간 멈추어 휴식을 취하였을 것이다. 성전터 (오른쪽 가운데). 현재는 동근 지붕의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지만 이보다 앞서 헤롯왕이 이곳에 성전을 재건축하였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을 거쳐 베들레헬까지 여행하였다.

남쪽으로부터 성전으로 올라가는 커다란 계단 (오른쪽 아래). 예수가 태어난 지 5~6주 후에 요셉과 마리아는 이곳을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가 축복을 받았다. 바로 이 계단에서 예수가 사람들을 가르쳤을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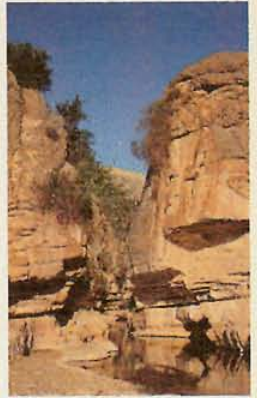


사진 촬영 : 니일 폴버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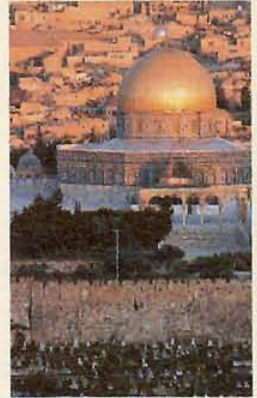


사진 촬영 : 니일 폴버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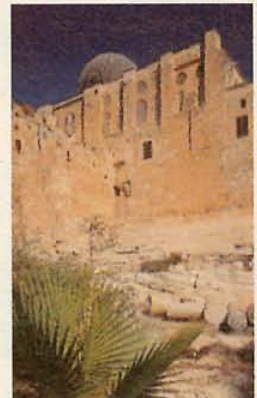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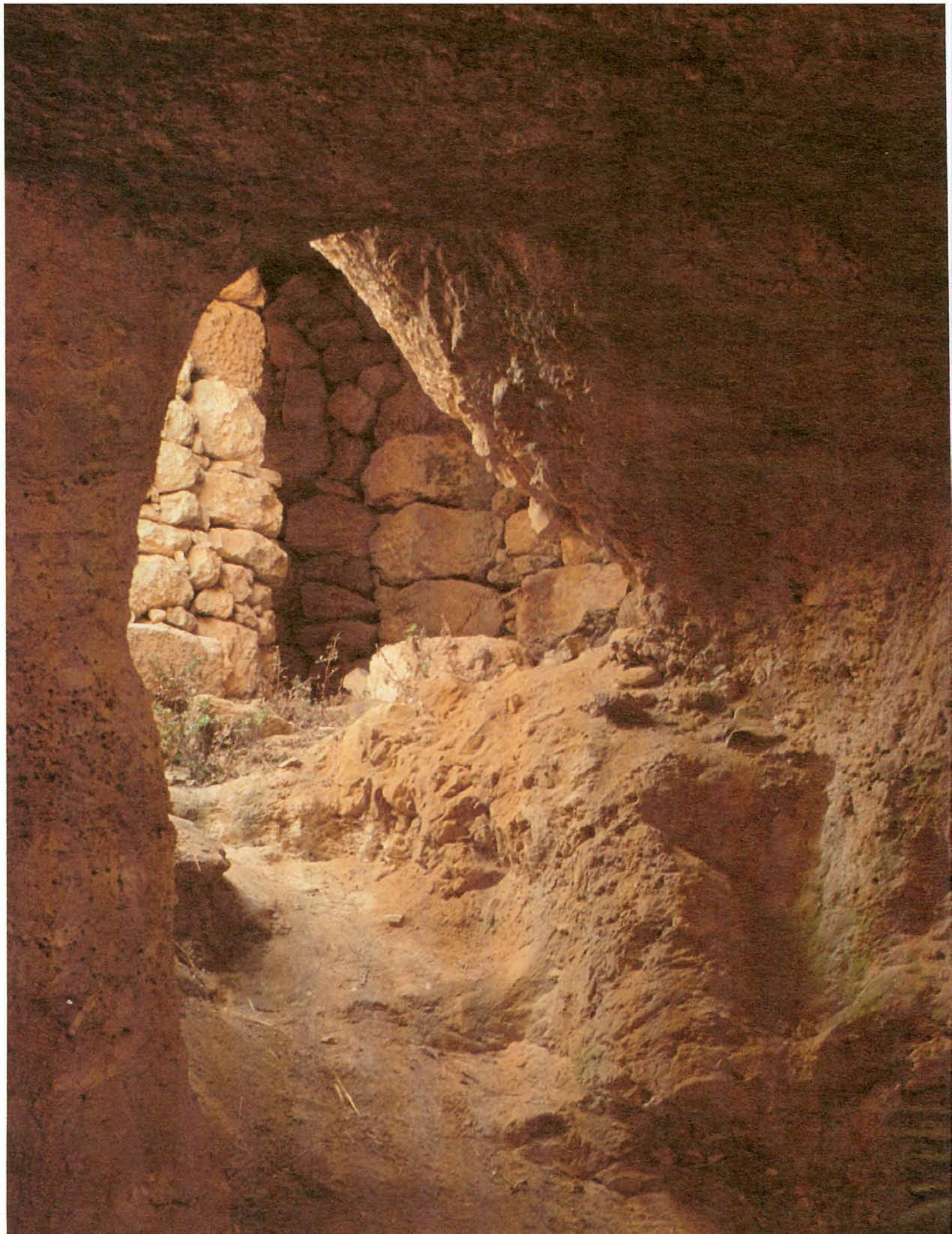


사진 촬영 : 데니스 워프



으로 된 가장 빠른 길이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가 택한 경로가 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번째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언덕을 넘기 위해선 육체적으로 너무 힘이 들며, 두번째 이유로는 여행자들이 이 길을 가면 사마리아로 직접 들어가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4:9 참조)

요셉과 마리아가 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길이 바로 두번째 경로로서 이스라엘 골짜기를 남동쪽으로 가로지른 후에 요단 골짜기로 가서 해수면이나 그 조금 낮은 지대로 여행을 하여 예리고로 가서 다시 유대 광야를 횡단하여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다.

어느 경로가 가능성이 더욱 높은지를 스스로 알아보기 위해 나는 최근에 두 길로 모두 여행을 해보았다. 두 길 모두 150킬로미터 정도로 낙타나 당나귀를 끌고 정상적으로 가면 한 시간에 5킬로미터 정도를 갈 수 있다. 따라서 여행자들이 대체로 하루에 27~38킬로미터를 걸을 수 있다. 나는 두 길을 걸어서 여행하는데 모두 30시간이 소요되었는데 하루에 27~32킬로미터를 걸어 5일이 걸린 셈이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러한 속도로 여

행을 하였다면 적어도 4일 내지 5일이 걸렸을 것이다. 그들이 여행 도중 매일 밤 어디에서 또 누구와 함께 야영을 하였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길을 지나는 모든 사람에게, 특히 곧 아기를 낳아야 하는 임신한 여성에게는 지루한 여행이었을 것이다. 때는 이른 봄으로 언덕으로 이어지는 시골 길은 아직은 밤이 되면 추웠겠지만, 해수면 아래에 위치한 요단 골짜기는 기온이 따뜻하였을 것이다.

여행의 마지막 부분이 가장 힘든 여정으로 여기고는 지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도시인 반면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언덕의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다. 예리고를 출발하여 광야를 거쳐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자체가 높이가 1,070미터나 되는 하나의 커다란 오르막 길로 이 길을 가는 마리아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다. 아마도 요셉은 안락한 방이 있는 여관을 무척이나 찾았을 것이다.

그러다가 잘 만한 곳을 찾으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그들은 마굿간으로 사용되는 석회암 동굴에서 머물다 가기로 결정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인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 교회는 바로 그러한 동굴 위에 지어졌으며 세계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교회 터가 바로 예수가 태어난 자리라고 믿고 있다.

어느 거룩한 밤에 한 천사가 베들레헴 주변의 들에서 목자들에게 나타나 아기의 탄생을 알려 주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누가복음 2:11)

구주의 탄생을 알리는 소식이 목자들이나 혹은 다른 유대인들에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주께서 빨리 오셔서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자신들을 구원하여 줄 것을 학수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소식도 그들을 놀라게 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의 히브리어로 *메시아*에 해당하는 그리스 말로써,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의 메시아를 기다려 왔다.

그러나 주라는 단어를 목자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였을지도 모른다. 주는 여호와와 창조주,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 바로 8킬로미터 떨어진 성전에서 경배하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탄생하신 것이었다. □

동물에게 먹이를 먹이기 위해 사용되었던 베들레헴의 한 동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곧 창조주가 이보다 더욱 초라한 환경에서 태어날 수 있다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단편 소설

아주 훌륭한 크리스마스 메시지

엘마 제이 에이츠

“**애**야, 훌륭한 메시지였어.” 내가 빌 할아버지의 구식 녹색 플리머스 차에서 내려 얼음같이 차가운 밤날씨 때문에 코트 깃을 바짝 여미자 그분이 내게 소리쳤다. 빌 할아버지는 갈라지고 못이 박히고 기름 얼룩이 묻은 손으로 핸들을 짝 움켜 쥐고 거리의 어둠속을 응시하고 있었다. 난 항상 빌 할아버지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분은 짧게 깎은 회색 머리로 덮인 넓은 가죽 같은 얼굴 뒤에 모든 비밀을 묻어 두었다.

빌 할아버지는 “너처럼 경전을 잘 알았으면 좋겠구나.”하고 머리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그런 다음 체념한 듯이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기엔 너무 늦고 말았어.”라고 덧붙였다. 빌 할아버지가 헛기침을 하자 쉰 웃음소리 같은 소리가 났다. “나는 네게 디젤 엔진에 관해서는 많이 말해 줄 수 있지. 오십 년도 넘게 그것을 만져 왔거든. 그러나 성경과 그런 종류의 것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을 쓰지 못했어.” 그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다. “그래, 아주 훌륭한 메시지였어.”

나는 손으로 입을 막고 신경질적으로 기침을 하며 짙막하게 안녕히 가시라는 인사말을 중얼거렸다. 빌 할아버지를 만나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나는 어릴 때부터 그분을 알고 있었다. 우리 집은 빌 할아버지가 사는 거리 아래쪽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그분과 함께 있으면 불편함을 느꼈다.

나는 차 문을 광 닫고 앞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주위를 둘러보니 현관의 불빛이 짙은 안개에 싸여 있었다. 나는 머리를 코트 깃에 푹 파묻고 몸을 숙이고 차가운 눈바람 속을 걸어갔다.

“다니엘, 일찍 돌아왔구나.” 아빠가 나를 맞아 주셨다. 나는 얼른 코트를 벗어서 녹은 눈을 털었다. “어떻게 됐니?”라고 아빠가 물으셨다.

나는 어깨를 으쓱하고선 소파에 털썩 주저 앉아 눈을 감고 불평하듯이 말했다. “늘 그렇죠, 뭐.”

“렌처 자매님은 어떠셨니?”

사진 촬영 : 스티브 빈디슨과 제드 블레이크, 모델 : 포드름 석간



“많이 좋아진 것 같다고 말씀하셔요. 최소한 일어나서 보조기를 쥘고 조금은 걸을 수 있었어요.” 우리 둘 다 잠시 동안 조용히 있다가 내가 혼잣말처럼 아빠에게 말했다. “그런데 빌 할아버지와 함께 가정 복음을 하는 데는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늘 그렇긴 하지만 그분이 별로 말을 하고 싶지 않을 때는요. 약 30분 내에 세 미망인 모두를 방문할 수 있어요. 그건 아마 기록적일걸요.”

종이가 떨어지는 소리에 나는 눈을 떴다. 아빠가 읽고 계시던 신문을 무릎에 떨어뜨리고는 나를 가만히 응시하고 계셨다. 아빠는 “빌 할아버지에게 무슨 문제가 있니?”라고 하셨다.

나는 깊이 한숨을 내쉬었다. “아뇨. 전혀 없어요. 그저 제 생각이예요. 자신이 직접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듯한 생각이 들어요.” 나는 빈정대며 덧붙였다. “그분이 이제까지 한 일이란 고작 매달 두번째 수요일마다 차를 타고 와서는 자기가 와 있다는 걸 알리고 함께 가정 복음 교육을 하러 가자고 경적을 울리는 거죠.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 경적 소리도 그런 것 중의 하나예요. 우리는 약속도 하지 않아요. 다만 추측으로 그분이 올거라는 걸 알죠. 그러나 그 나머지는 모두 제 일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모든 것을 하죠.

“도대체 빌 할아버지는 왜 가정 복음 교육을 하죠?” 나는 갑자기 호기심을 보이며 물었다.

“무슨 뜻이지?”라고 아빠가 물으셨다.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자세를 바꿨다. “3개월 전에 감독님이 빌 할아버지와 함께 가정 복음 교육을

하도록 지명해 주신 이래로 저는 줄곧 그분이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분이 교회에 나온 적이 있었나요?”

아빠는 신문을 마룻바닥에 떨어뜨리셨다. “이따금씩 나왔지. 아내인 릴리가 쓰러지기 전까지는. 그러나 그때도 그는 언제나 팔꿈치까지 기름을 묻힌 저저분한 작업복을 입고 자신의 정비소에 있을 때 더 편한 것처럼 보였지.”

나는 씨익 웃었다. “믿을 수 있어요. 빌 할아버지는 항상 낡은 엔진 같은 냄새를 풍기죠. 손에 묻은 기름을 깨끗이 지울 수가 없으신가봐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빌 할아버지는 담배를 피우죠, 그렇죠?”하고 말했다.

아빠는 나를 쑥 쳐다보시고선 어깨를 으쓱하셨다. “그분이 담배 피우는 걸 본 적이 없다.”

“보실 것까지도 없어요. 노랗게 물든 손가락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담배 냄새를 없애기 위해 그 끔찍한 녹색 사탕을 빨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제가 클라크 감독님께서 빌 할아버지를 가정 복음 교사로 부른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예요.”

“그 세 미망인들은 그분에 대해 불만이 없잖아.”라고 아빠는 말씀하셨다.

“그러나 가정 복음 교사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게 이것이 빌 할아버지를 교회로 나오게 할 기회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아빠도 저처럼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잖아요.”

“나는 주님께서 가정 복음 교육은 빌 할아버지가 선을 행할 수 있는 한 방법임을 아신다고 생각해.” 아빠는 우울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나는 입을 딱 벌렸다. “선을 행한다고요? 하지만 그분은 완전히 비활동 회원 인걸요!”

“너도 빌 할아버지에게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어.”

“전 디젤 엔진 수리공이 되고 싶진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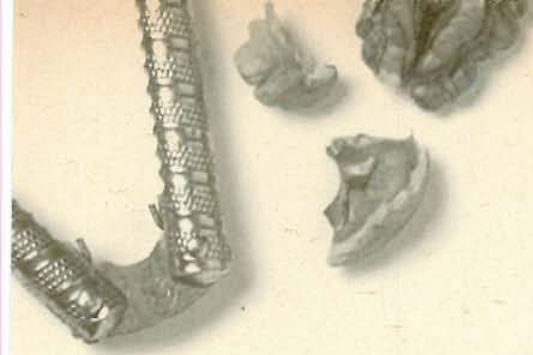
“아마 복음에 관해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거야.”

“빌 할아버지에게서요?” 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반문했다. “그분이 경전을 한 번도 읽지 않았다는 것에 내기를 걸겠어요!”

“나는 네가 빌 할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기름이 묻은 손과 담배로 노랗게 물든 손가락을 보실지 의심스럽구나.” 아빠는 헛기침을 하시고는 화제를 바꾸셨다. “아침에 다시 한번 더 형을 위해 신문을 배달해 줄 수 있겠니? 그엔 아직도 목이 심하게 아프고 기침도 많이 하더구나.”

다음날 아침 나는 다섯 시 조금 전에 일어나서 자동차 뒷 좌석에 헤럴드지 더미를 던져 넣었다. 밤 사이에 눈이 그쳐서 온 세상이 그 축축한 숨덩어리에 묻혀 있었다. 나는 차도를 흘깃 내려다보고는 차를 몰고 나가기 전에 눈을 좀 치우려면 몇 분이 걸릴까 생각했다. 곱은 손끝을 호호 불면서 발밑의 눈을 짓밟으며 머리를 저었다. 나는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나는 차가 눈 속에 빠지지 않게 하면서 몰고 나갈 수 있다고 확신했다.

처음에 멈춘 곳은 렌치 자매님의 집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나도 신문을 현관 문 안으로 집어 넣으려고 애쓰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현관 쪽으로 바로 던



져 버렸다. 그러나 렌처 자매님은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집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뒷 좌석에서 신문을 한 장 꺼내들고 차에서 나와 현관 계단으로 달려갔다. 나는 계단 앞에서 발을 멈추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기지 않는 듯 바라보았다. 계단과 앞쪽의 보도의 눈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다. 시계를 훑길 보았다. 5시 15분. 나는 “와, 벌써 누군가가 오늘 아침에 왔었군.”이라고 중얼거리며 깨끗한 보도를 달려 올라가 신문을 덧문 안으로 집어 넣었다. 그러면서 나는 싱긋 웃었다. “생각보다 렌처 자매님은 보조기를 사용해서 더 잘 걸으실 수 있나봐.”

“재빠르구나.” 추위 속에서 90분을 보내고 집으로 뛰어들어 갔을 때 아빠가 소리치셨다. 아빠는 출근하려고 코트를 입고 가방에 서류를 밀어 넣고 계시는 중이었다.

나는 “밖에 눈이 엄청나게 와 있어요. 밤 사이에 10cm는 더 왔나봐요.”라고 말했다.

“우리 차길과 보도를 깨끗이 치웠겠지?” 아빠가 농담을 던지셨다.

나는 싱긋 웃어 주었다. “아빠 제가 세시에 일어나길 바라셨어요? 신문을 배달하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그렇지만 일찍 일어난 사람도 있던데요. 렌처 자매님 집의 보도가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어요.”

아빠는 미소를 지으셨다. “해치 자매님과 벨러드 자매님 집은 어땠니?”

“아빠, 전 가정 복음 교육을 한 게 아니라 신문을 배달하고 있었다구요. 그쪽 길로는 가지도 않았어요.”

크리스마스 한 주 전인 다음 화요일에 나는 침실에서 청년 독신 성인 크리스마

스 파티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리는 돌아다니며 캐럴을 불러 주다가 그다음에는 트레이시 히스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게임을 할 예정이었다. 두꺼운 양말을 신고 부츠를 신고 있는데 길에서 자동차 경적이 울리기 시작했다. 나는 어머니가 현관 마루에서 “다니엘, 오늘 밤에 가정 복음 교육을 하러 갈거니?”라고 외치시기 전까지는 그 소리를 무시했다.

“오늘밤요? 아뇨, 전 청년 독신 성인 캐롤 파티가 있어요.”

“빌 할아버지가 밖에서 널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

나는 입을 딱 벌린 채로 계단을 내려왔다. “빌 할아버지라고요? 우린 이미 이번달 가정 복음 교육을 다 마쳤는데요! 틀림없이 그분이에요?”

“저건 그분의 검은 포드 트럭이잖아?”

나는 부엌 창문에 낀 성애를 입김으로 녹여 뒹고 밖을 내다 보았다. 그것은 정말 빌 할아버지의 트럭이었다. 그분의 1963년형 녹색 폴리머스도 구식이라고 생각했지만 검은 포드 트럭은 50년대 초의 것으로써 완전히 골동품이었다. 나는 “오늘밤 내가 빌 할아버지와 함께 갈거라고 누군가가 생각했다면—”이라고 말하면서 창밖을 한번 더 내다 보았다. “도대체 내가 무얼 할거라고 생각하시는거야. 그저 방안에 앉아 당신이 데리러 올때만 기다리고 있는 줄로 생각하시나?”

“다니엘.” 엄마가 내 말을 막으셨다.

“넌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잖니.”

“엄마, 전 늦을 판이라고요!”

“가서 그대로 말씀드리렴. 네가 다른 약속이 있다고 하면 이해해 주실거야.”

나는 혼자 투덜거리며 코트도 걸치지 않은 채로 얼음같이 차가운 저녁 공기 속을 총총걸음으로 걸어 검은 포드차에 다가갔다. 빌 할아버지가 나와 이야기하기 위해 문을 열고 밖으로 몸을 내밀었다.

나는 그분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먼저 물었다. “오늘밤 저와 약속이 되어 있으셨던가요?” 추위 때문에 나는 팔을 찡찡찰찰 두들기며 발을 동동 굴렀다.

빌 할아버지는 짧은 턱수염을 문지르며 간단하게 설명하였다. “크리스마스가 다음 주야. 그 미망인들에게 줄 것이 두 가지 있는데, 같이 가 주겠니?”

“전 청년 독신 성인 파티가 있어요. 오늘밤에 자매님들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몰랐어요.”

“몇 분이든 돼. 그래도 코트를 갖고 나오는 게 더 좋을거야.” 빌 할아버지는 꺾꺾 웃으며 말했다. “이 고물 트럭은 난방이 잘 안돼. 하지만 폴리머스 대신 이걸 가져 와야 했어.” 그리고는 뒤쪽으로 고개짓을 하였다. “비비안 렌처 자매를 위해 특별한 것을 실었거든.”

나는 트럭 뒤를 훑듯 보았다. 어떤 커다란 물체가 누더기 같은 방수포로 덮여 있었다.

빌 할아버지는 내가 망설이는 것을 보고 “파티 장소까지 데려다 줄게.”라고 덧 붙였다.

“약속이 있었던 거니?” 내가 코트를 가지러 현관문을 광 닫고 들어가자 엄마가 물으셨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뇨, 하지만 그런 건 그분에게 별 문제가 안돼요. 그리고 전 그 검은 고철 덩어리 안에서 얼

어 버릴 거예요. 히터도 없고 제가 앉을 쪽의 문은 닫히지도 않아요. 에이 참! 하필이면 오늘밤에 오셨담!”

벨러드 자매님의 집으로 차를 몰고 가면서 빌 할아버지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예상했던 대로 나는 거의 얼어 버릴 지경이었다.

차가 벨러드 자매님의 집 앞에서 멈추자 빌 할아버지는 시트 아래에서 갈색 종이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우리는 현관 문 쪽으로 가는 보도로 걸어올라가기 시작했다. 내가 노크를 하자 곧 벨러드 자매님이 문을 열고 우리를 내다보셨다. 자매님은 잠시 누군가 살피시더니 다음 순간 얼굴에 함박 웃음을 띄우며 덧문을 열고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셨다. “오늘 밤 오실지 어떨지 궁금했어요. 자, 들어오세요.”

우리는 여느 때처럼 아프간 담요로 덮인 낡은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벨러드 자매님이 자기 의자를 우리 앞으로 끌어 당겨 놓기 전에 빌 할아버지는 갈색 종이 봉투를 건네 주며 통명스럽게 말했다. “호두예요. 저희 집 나무에서 땀어요.”

“오, 빌, 고마워요. 지난 번에 주신 것은 추수 감사절 때 사용했어요. 저는 그것들을 한해 동안 간수했어요. 냉장고에다 보관해서 신선하게 유지했죠.”

빌은 자신의 거칠고 갈라진 손을 내려다보며 “이건 껍질을 벗기고 깨끗이 다듬은 제일 좋은 것들이예요.”라고 덧 붙였다. 빌 할아버지는 두 손을 비벼댔다. 나는 그분의 손이 서로 스치면서 나는 비석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잠시 그 손을 바라보며 나는 지난 달에 지혜의 말씀에 관해 전해 준 메시지를

를 떠올렸다. 지혜의 말씀은 그 달의 대관장단 메시지 중 일부에 불과했으나 나는 그것을 크게 강조했다. 실제로 그 자매님들에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것이 빌 할아버지의 나쁜 습관을 비난하려는 잔인한 시도였었다고 생각했다.

“어머니, 빌, 껍질을 벗긴 채로 5파운드는 되겠어요.” 벨러드 자매님은 놀라서 소리치며 나를 그 선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 가셨다.

빌 할아버지는 수줍은듯 어깨를 으쓱하고선 코를 잡아당기셨다.

벨러드 자매님은 “이 일을 하는 데 꽤 여러 시간이 걸렸거든요. 정말 고마워요.”라고 말씀하셨다.

빌 할아버지는 칭찬이나 인사말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이라도 보이면 안절부절 못하며 수줍어하고 입을 다물어버리시곤 했다. 그분이 그 어색한 상황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그 관심의 초점을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향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분은 갑자기 자신의 붉은 손수건을 책 꺼내어 코를 풀고서는 “다니엘이 자매님을 위해 크리스마스 메시

지를 전해줄 거예요.”라고 말해서 나를 놀라게 했다.

내가 놀란 표정으로 빌 할아버지를 흘끗 쳐다보자 그분은 자기 손을 바지에 문지르며 오른발을 바닥에 탁탁 치기 시작했다. 나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었지만 이 상황에서는 어떠한 항의도 무익할 것 같았다. 준비도 하나 없이 갑작스럽게 부탁받은 말씀에 대한 적절한 듯한 주제

는 크리스마스 이야기였다.

일부는 잊어버리고 일부는 뒤섞인 상태로 서투르게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들려준 후 나는 부끄러워서 귀와 목이 붉어진 채로 고개를 푹 숙였다. 빌 할아버지는 일어서며 “아주 훌륭한 크리스마스 메시지였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헛기침을 하면서 덧붙여 말씀하셨다. “가기 전에 다니엘이 기도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벨러드 자매님은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으며 나는 기도했다. 그 집을 떠나려고 할 때 빌 할아버지는 무언가 생각난 것처럼 벨러드 자매님 집의 장작 난로 옆에서 멈췄다. 그리고는 벨러드 자매님 쪽으로 돌아보며 “집사들이 자매님께 장작을 가져다 주었죠?”라고 말씀했다. 벨러드 자매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빌 할아버지는 또 “그들이 장작도 꽤 주었나요?”라고 물으셨다.

벨러드 자매님은 주저하며 “나 혼자서도 그것을 쪼갤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

“집사들이 장작을 꽤 주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빌 할아버지는 거의 화가 난듯 소리쳤다.

“빌, 그점에 대해서는 염려 말아요.

나 혼자서도 잘 할 수 있어요. 어쨌든 난 그 난로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클라크 감독님은 내게 난로를 가지고 씨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저 난로에 불을 붙이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체로 그렇게 하죠. 추운날 밤에는 역시 따뜻한 난로불 옆에 발을 올려 놓는게 좋아요...”

“그렇지만 애들이 나무를 쪼개

놓지 않았죠?” 빌 할아버지가 말을 가로막았다.

“아, 이웃집 소년이 이따금씩 와서...”

빌 할아버지는 “나와 다니엘이 나무를 쪼개 놓을게요. 애한테 자매님의 도끼를 빌려 주신다면 난 트럭 안에 둔 내 도끼를 사용할게요.”라고 말을 잘랐다.

나는 빌 할아버지가 나무를 쪼개 주겠다고 제의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오늘밤이라니! 나는 외출복을 입고 있었다. 게다가 나무를 쪼개고 나면 아이들이 캐를을 불러 주러 트레이시의 집을 떠날 때까지 그곳에 결코 도착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빌 할아버지는 벌써 트럭 쪽으로 반쯤 가고 있었다.

얼마 후 우리들은 벨러드 자매님의 뒷마당에서 처마에 달린 약한 전구로부터 흘러나오는 희미한 노란색 불빛을 받으며 나무를 쪼개고 있었다.

“호도 한 자루가 뭐 대단한 거라고. 호도 한 자루로 그 자매님이 따뜻해질 수는 없어, 그렇지? 잊지 않았어야 했는데. 평소에는 잊지 않는데 말이야. 평소엔 세심하게 점검을 했는데.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어. 그때 난 그 차가운 난로를 본 거야. 자매님은 항상 불을 약하게 피워 놓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리 힘든 일은 아니야. 이들 미망인들은 보살핌이 필요해. 호도 한 자루와 천사, 목자, 말구유에 관한 이야기도 훌륭하지만 추운 날 밤에 마사 벨러드는 불을 땀 장작을 더 좋아하지.” 빌 할아버지는 도끼를 힘차게 휘두르며 중얼거렸다.

나는 장작 패던 일을 멈추고 빌 할아버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외출복과 시린 손과 젖은 발을 잊은 채였다. 잠시 노인

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트고 갈라지고 얼룩진 손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 다시 나무를 쪼개기 시작하는 나에게 캐를 파티는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았다.

30분 후 우리는 나무를 모두 쪼개어 뒷문 옆에 쌓아 두었다. 그 집을 떠나면서 빌은 벨러드 자매님께 주의를 주었다. “이제 자매님이 더 이상 나무를 쪼개지 마세요. 자매님을 위해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 우리는 헤치 자매님의 집으로 차를 몰았다. 자매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벨을 누르자마자 환한 미소를 띄우며 문을 열어 주었다. 그리고 내 팔을 붙들고 안으로 끌어 들이셨다. “오늘이 그날밤이라는 사실을 방금에야 알았어요.” 자매님은 웃으면서 빌 할아버지의 손을 잡아 마구 흔들며 우리를 거실로 데려 가셨다. “뜨거운 초콜렛 우유와 과일 케익도 있어요.”

“이건 자매님을 위한 거예요.” 빌 할아버지는 또 다른 호도 자루를 내밀며 말했다.

“오, 빌. 결코 잊지 않는군요, 그렇지요?” 헤치 자매님은 자루를 조심스럽게 열고 안을 들여다 보고는 놀라서 입을 벌리셨다.

빌 할아버지는 또다시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다. 그분은 엄지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목썬 소리로 “다니엘이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전해 주면 우리는 가야 해요. 저 앤 파티가 있거든요.”라고 말씀했다.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렌처 자매님의 집이었다. 내가 노크를 하기도 전에 문이 열리고 렌처 자매님이 싱긋이 웃으며



금속 보조기를 잡고 절름거리시며 우리를 반갑게 안으로 맞아들이셨다. 빌 할아버지는 한번 더 호도를 전해 주는 의식을 거행하였다. 그분과 렌처 자매님은 날씨와 자매님의 새로운 증손자와 시내 거리의 엄청난 상황에 대해 잡담을 나누었다. 나는 빌 할아버지가 내게 차레를 넘겨 줄 순간을 대비하면서 마음속으로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급하게 다시 연습하고 있었다.

갑자기 빌 할아버지는 일어서시더니 마룟바닥을 보며 “자매님께 드릴 조그마한 것이 하나 있어요.”라고 말씀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며 물었다. “다니엘, 도와 주겠니? 날 위해서 문을 붙잡아 주려 무냐.”

빌 할아버지는 트럭으로 가서 아까 보았던 그 방수포를 벗기고 의자 같은 것을 끌어내어 집 입구쪽으로 가져 왔다. 빌 할아버지는 뒤뚱거리며 거의 완벽하게 다듬고 윤을 낸 그 큰 참나무 흔들의자를 집안으로 날라오셨다. 그리고 그것을 방가운데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뒤로 물러서서는 자랑스럽게 웃으셨다. 렌처 자매님은 바라만 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다. 자매님은 먼저 의자를 바라보고 다음에는 빌 할아버지를, 그 다음에는 다시 의자를 바라보셨다.

빌 할아버지는 부끄러워하며 설명

했다. “지난 봄에 먼저 쓰시던 것이 망가졌을 때 새로운 것을 만들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자매님도 아시다시피 제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저는 늘 그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이번 것은 쉽게 망가질거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가게에서 사는 것과는 다를거예요.”

빌 할아버지는 말을 마치고 웃음을 거둔 후 내 옆의 소파에 풀썩 주저 앉았다.

렌처 자매님은 천천히 몸을 굽혀서 그 안락 의자 쪽으로 가시더니, 의자의 매끄럽고 단단하고 윤나는 표면을 손가락 끝으로 어루만지셨다. 자매님이 의자의 등받이를 밀자 안락 의자는 리드미컬하게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한 몸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히고 회색 머리를 단단한 등받이에 기대었다. 잠시 동안 자매님은 의자에 가만히 앉아 계셨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아주 천천히 흔들기 시작하였다. 의자를 흔들면서 자매님의 입술에는 미소가 떠올랐으며 눈에는 커다랗고 투명한 눈물방울이 흘러 내렸다. 렌처 자매님은 “빌, 고마워요. 새로운 안락 의자를 얼마나 원했는지 몰라요.”라고 속삭이셨다. 그리고는 구부러진 팔걸이를 어루만지며 “그러나 이건 지난번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군요.”라고 덧붙이셨다.

빌 할아버지는 헛기침을 하시고는 갑자기 “다니엘이 자매님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갖고 왔어요.”라고 말씀했다.

“먼저 기도부터 하죠.”라고 렌처 자매님이 제안하셨다.

빌 할아버지는 “다니엘이 기도도 할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

렌처 자매님은 상냥하게 “빌, 오늘밤

은 제가 기도할게요.”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세 사람은 머리를 숙였다. 렌처 자매님이 기도를 할 때 나는 빌 헤이워드 형제님이 왜 가정 복음 교사에서 해임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또 빌과 그가 베푸는 친절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가 여러 번 눈을 치워 주고 낙엽을 긁어 모아 주고 정원을 갈고 잡초를 없애 주고 저의 모든 필요 사항을 보살펴 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그는 참으로 아버지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어 왔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이 훌륭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렌처 자매님은 기도했다.

아멘이라고 말하자마자 빌 할아버지는 멧적은 듯이 몸을 돌려 더듬거리며 “다니엘이 자매님을 위해 아주 훌륭한 메시지를 가져 왔어요.”라고 말씀했다.

잠시 동안 나는 감정이 북받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에 주먹만한 큰 덩어리가 걸려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나는 멧한 기분이 들었다. 자신이 경전을 잘 안다고 생각했으며 특별히 빌 헤이워드 형제님과 같은 사람에 비하면 더욱 그렇다고 생각했던 나는 그 순간 크리스마스 이야기조차도 기억할 수 없는 작은 존재로 느껴졌다. 최소한 그 말씀을 하기에 합당치 못한 것 같았다. 내 마음속에 떠올랐던 것은 너무나 예상 밖의 비유였다. 그리고 그것은 크리스마스에 할 만한 이야기도 내가 생각했던 것도 아니었다.

나는 입술에 침을 바르고 손을 바지에다 문질렀다. “저는 크리스마스가 제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드리고 싶어요. 최소한 그것이 오늘밤에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더듬더듬 말하면서 내 손을 내려다 보았다.

양손이 모두 깨끗했다. 손톱도 잘 깎여 있었고 손바닥에 굳은 살도 없었다. 나는 “성전에 기도하러 간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라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바리새인은 깨끗하고 교양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매우 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세리는 더럽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을 가진 노동자였어요. 두 사람 다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그 바리새인은...”(누가복음 18:10~14 참조)

우리 집에 도착했을 때 빌 할아버지는 핸들을 짊 잡고 헤드라이트의 현란한 불빛 너머로 어둠 속을 가만히 응시하였다. 그분은 “아주 훌륭한 메시지였다. 그러나 네가 비비안 렌처 자매님의 집에서 들려준 그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생각해. 왜, 그 성전에 간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 말이야.”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잠시 말을 멈춘 다음 “내가 그 뜻을 이해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겠다. 그건 경전보다 디젤 엔진에 대해 더 많이 연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애.”라고 덧붙이셨다.

“하지만 형제님, 저는 형제님이 경전을 정말로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라고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리고 그분에게로 돌아서서 내 손을 내밀었다. 나는 이전에는 그분이 먼저 손을 내밀지 않는 한은 결코 악수를 하지 않았던 빌 할아버지와 악수를 하였다. 그리고 목선 소리로 “고마워요, 형제님. 전해 주신 메시지에 감사해요.”라고 말했다. 그분의 거친 손을 흔들며 나는 계속해서 “아주 훌륭한 메시지였어요.”라고 말했다. □

1993년 성도의 벗 색인

주제 색인

7

가르침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 미셸린 피
그레슬리, 1월, 92쪽
올바른 원리의 힘, 리차드 지 스코트,
7월, 32쪽
“훌륭하신 부모님에게서 태어나”,
델러스 앤 아치볼드, 1월, 25쪽

가장의 역할

아버지 돌아오세요, 제임즈 이
파우스트, 7월, 35쪽

가정

가정을 그리워하는 마음, 마빈 제이
애쉬튼, 1월, 21쪽
영적으로 강건한 가정과 가족들, 조셉
비 워스린, 7월, 68쪽

가정의 밤

영적으로 강건한 가정과 가족들, 조셉
비 워스린, 7월, 68쪽
타임 캡슐, 루스 아이먼, 3월 64쪽

가족

가장 훌륭한 선물, 지미 카이리, 12월,
16쪽
가족은 영원해, 루스 뮤어 가드너와
벤자 와이 윌킨즈, 3월, 56쪽
고요한 밤, 디앤 워커, 12월, 22쪽
나는 “집안에 갇혀 있는 여자”입니까?
페트리아 켈리, 3월, 46쪽
또 하나의 성찬 모임, 페트 알레드
버넬, 6월, 14쪽
새로운 느낌의 부활절, 리네트 케이
알렌, 4월, 58쪽
성전이 우리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프란세스 더블류 핫슨, 11월, 32쪽
숨겨진 고민, 리사 에이 존슨, 2월, 26쪽
타임 캡슐, 루스 아이먼, 3월, 64쪽
영적으로 강건한 가정과 가족들, 조셉
비 워스린, 7월, 68쪽

가치관

복음의 원리를 따르는 성공적인 삶,
데이비드 비 헤이트, 1월, 74쪽

간증

“그것은 참되니까요, 그렇잖습니까?”,
고든 비 힝클리, 10월, 2쪽
그들은 주님을 알고 있다: 말일의
예언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간증함, 4월, 6쪽

그림책 간증, 말리 소우번쑹, 2월, 8쪽
새로운 접근 방법, 샤우나 로빈슨, 4월
20쪽

성스런 대지에 서서, 그레고리 엔시나
빌리코프, 2월, 30쪽

어느 소년의 간증, 샤롯데 그로스니컬
도미니코, 9월, 61쪽

영적인 거듭남, 글렌 엘 페이스, 1월,
11쪽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회복의
중심입니다, 게리 제이 콜맨, 1월,
43쪽

제가 의지하고 있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7월, 83쪽

“주께서 부르시는 사람을 주께서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닐 엘
앤더슨, 7월, 82쪽

카를로스와 마리아 로이그: 마음의 변화
, 마빈 케이 가드너, 3월, 40쪽

폰차이 준트라티프: 영적으로 준비됨,
데이비드 미첼, 2월, 42쪽

하나님의 왕국을 세움, 5월, 25쪽
회복을 찾아서, 안젤로 스카폴라, 6월,
16쪽

감사

감사의 노래, 리사 레이 터너, 6월, 46쪽
선물, 토마스 에스 몬슨, 7월, 59쪽

“주께서 부르시는 사람을 주께서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닐 엘
앤더슨, 7월, 82쪽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려고, 주디
에드워즈, 12월, 54쪽

개심

개심을 통한 확신, 에일린 에이치
클라이드, 1월, 88쪽
생명의 주님, 제이 리차드 클라크, 7월,
9쪽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회복의
중심입니다, 게리 제이 콜맨, 1월,
43쪽

개심(신앙, 간증 참조)

개척자

값진 유산, 제임즈 이 파우스트, 1월,
84쪽
명예로운 개척자들이여 축복받으시어라,
매리 엘런 에드먼즈, 3월, 12쪽
모든 창문, 모든 뚫림, 리차드 나이첼
홀잡필, 11월 8쪽
브리감 성과 사회적 책임, 아더 알
베잇, 2월, 10쪽

슬트레이크 성전, 고든 비 힝클리, 11월,
2쪽

견딤

가정을 그리워하는 마음, 마빈 제이
애쉬튼, 1월, 21쪽
값진 유산, 제임즈 이 파우스트, 1월,
84쪽
기적-과거와 현재, 토마스 에스 몬슨,
1월, 68쪽
신앙을 지키십시오, 리차드 시 에즐리,
7월, 11쪽
탐색과 구조, 토마스 에스 몬슨, 7월,
48쪽

결심

값진 유산, 제임즈 이 파우스트, 1월,
84쪽
“너희 마음을 굳게 정하라”, 닐 에이
맥스웰, 1월, 65쪽
“보라 원수들은 몽쳤도다”, 닐 에이
맥스웰, 7월, 76쪽
복음 원리를 따르는 성공적인 삶,
데이비드 비 헤이트, 1월, 74쪽
“주께서 부르시는 사람을 주께서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닐 엘
앤더슨, 7월, 82쪽
황금의 시기, 로버트 엘 백맨, 1월, 13쪽

결혼

결혼 생활에서의 사랑과 웃음과 영성,
바바라 워크맨, 8월, 12쪽
배우자의 행복, 멜빈 엘 프루이트, 2월,
46쪽

겸손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라, 로웰 디 우드,
7월, 88쪽
신앙을 지키십시오, 리차드 시 에즐리,
7월, 11쪽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신성한 도움을
받음, 진 알 쿡, 7월, 79쪽

경건

“예수님 생각하오니”, 하워드 더블류
헌터, 7월, 63쪽

경건

경전을 상고함으로써 그리스도께 나아옴,
매릴 제이 베이트먼, 1월, 27쪽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로워짐, 존 이
파울러, 1월, 78쪽
“권유로 이르노니”(앨마 5:62), 베티
조 앤 잭슨, 1월, 76쪽
기적을 바랍, 타라 피어슨, 10월, 33쪽
모든 것을 실패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3월, 19쪽

“보라 주님께서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내게 보이셨으니”, 엘 톰 페리, 1월,
15쪽
성경 이야기와 개인적인 보호, 델린
에이치 옥스, 1월, 37쪽
약속도 잊지 말지니, 제이 이 켄슨, 1월,
80쪽

경전 공부

경전을 상고하십시오, 엘 라이오넬
캔드릭, 7월, 13쪽
복음의 원리로 돌아감, 엘 톰 페리, 7월,
90쪽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리노 알바레스,
1월, 24쪽

공예품(심심풀이 참조)

4월, 62쪽; 6월, 60쪽; 12월, 64쪽

교리와 성약

경고의 음성, 에즈라 태프트 벤슨, 8월,
2쪽

교만

“보라 주님께서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내게 보이셨으니”, 엘 톰 페리, 1월,
15쪽
신앙을 지키십시오, 리차드 시 에즐리,
7월, 11쪽
주님은 의인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딘
엘 라슨, 1월, 40쪽

교육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러셀 엠 넬슨,
1월, 6쪽
“학식을 얻음이 유익할 것이나...”,
보이드 케이 패커, 1월, 71쪽

교회사

용기있는 사람, 존 테일러, 리안 하츠혼,
3월, 26쪽

교회 성장

필리핀에서의 선교 사업, 아우구스토우
에이 림, 1월, 82쪽

교회 지도력

“교회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고든 비 힝클리, 1월, 53쪽

교회 학교

“학식을 얻음이 유익한 것이나...”,
보이드 케이 패커, 1월, 71쪽

구세주(예수 그리스도 참조)

권능

그리스도에 뿌리를 둔 교회의 힘, 브이
델러스 메릴, 7월, 28쪽

성전과 신권, 보이드 케이 패커, 7월,
18쪽

권세

그리스도에 뿌리를 둔 교회의 힘, 브이
델러스 메릴, 7월, 28쪽
신앙은 신권의 권세를 불러 오, 존 케이
카머, 7월, 41쪽

기도

감사의 노래, 리사 레이 터너, 6월, 46쪽
“권유로 이르노니”, 베티 조 엔 켈슨,
1월, 76쪽
복음의 원리로 돌아감, 엘 톰 페리, 7월,
90쪽
기도, 데이비드 이 소렌슨, 7월, 30쪽
기도의 언어, 델린 에이치 옥스, 7월,
15쪽
기도를 통한 평안, 렉스 디 피네가, 7월,
65쪽
기적을 바람, 타라 피어슨, 10월, 33쪽
이노스와 같은 기도, 크리스티 앤 질즈,
6월, 24쪽
주님을 매일 찾음, 2월, 25쪽
주차장에서 드린 기도, 5월, 24쪽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 헨리 비
아이어링, 9월, 64쪽
기도의 언어, 델린 에이치 옥스, 7월,
15쪽
복음의 원리로 돌아감, 엘 톰 페리, 7월,
90쪽

그랜트, 히버 제이

히버 제이 그랜트: 변명하지 않는 사람,
레온 알 하트슨, 8월, 26쪽

그림

그리스도: 마지막 성역 주간, 구스타브
도레이, 4월, 26쪽
나부 성전 건축, 게리 이 스미스, 2월,
뒷표지 안쪽
따스한 손길과 마음으로, 마조리 드래퍼
콘더, 5월, 34쪽
모성, 낸시 시몬즈 크룩슨, 3월, 뒷표지
안쪽
거룩한 밤, 안토니오 알레그리 다
코레지오, 12월, 뒷표지 안쪽
송이, 에드윈 에반스, 9월, 이련이런
표지
세뿌리는 자와 추수하는 자, 그레그
케이 울슨, 8월, 뒷표지 안쪽
요셉과 올리버를 성임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미네르바 테이처트,
5월, 뒷표지

우리 채소밭에서, 리우다 쇼타니아, 9월,
뒷표지 안쪽

유산, 진 레이튼 런드버그 클라크, 5월,
뒷표지 안쪽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파함, 윈프레드 알
게이슬러, 6월, 뒷표지 안쪽

전세계 어린이들의 미술, 9월, 34쪽
최후의 만찬, 4월, 12쪽

1836년 4월 3일, 커틀랜드 성전에서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신 주님, 데오도르 고르카,
10월, 뒷표지 안쪽

1885년, 메인 스트리트에서 본 광경, 엘
로운즈, 11월, 뒷표지 안쪽

금식

마놀리의 첫 금식, 캐롤 앤 보우먼
리베로, 3월, 24쪽

L

남 아메리카

남 아메리카 남부 지역에서의 교회의
성장, 9월, 44쪽

뉴스 속의 친구들

스페인과 포르투갈, 3월, 58쪽

D

대관장단 메시지

경고의 음성, 에즈라 태프트 벤슨, 8월,
2쪽

“그것은 참되니까요, 그렇잖습니까?”,
고든 비 힝클리, 10월, 2쪽

나는 믿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3월,
2쪽

부활절의 의미, 에즈라 태프트 벤슨,
4월, 2쪽

솔트레이크 성전, 고든 비 힝클리, 11월,
2쪽

승영으로의 초대, 토마스 에스 몬슨,
9월, 2쪽

예수께서 걸으신 길, 토마스 에스 몬슨,
2월, 2쪽

우리는 정직함을 믿는다, 고든 비
힝클리, 6월, 2쪽

절망의 새벽-환희의 아침, 토마스 에스
몬슨, 5월, 2쪽

크리스마스의 영, 토마스 에스 몬슨,
12월, 2쪽

대관장의 계승

교회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고든 비 힝클리, 1월, 53쪽

덴마크

덴마크의 바다와 농토와 사람들, 질즈 에이치 플로렌스 2세, 6월, 36쪽

도덕

성약을 지키, 엠 러셀 벨라드, 7월, 6쪽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무엇인가?, 닐 에이 맥스웰, 8월, 19쪽

도전

아무도 쉽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존 비 디슨, 1월, 45쪽

독자를 위한 참고 사항

6월, 33쪽 : 8월, 42쪽 : 9월, 46쪽

돋보 톰보

돋보 톰보에서의 하루, 에시나스 무투만지, 6월, 8쪽

동료 그룹의 압력

소년 시절에 배운 교훈들, 고든 비 힝클리, 7월, 52쪽

두려움

두려움, 버지니아 에이치 피어스, 1월, 90쪽

디아라, 모디보

시련이 축복으로, 모디보 디아라, 찰리 라운디 아놀드와 제닌 튜, 8월, 8쪽

근

로이그, 카를로스 와 마리아

카를로스 와 마리아 로이그: 마음의 변화, 마빈 케이 가드너, 3월, 40쪽

리, 해롤드 비

해롤드 비 리, 켈린 릭스 애덤스, 11월, 50쪽

국

만델, 올리비오 고미즈

올리비오 고미즈 만델: 성공의 비결, 리사 에이 존슨, 3월, 34쪽

말리

시련이 축복으로, 모디보 디아라, 찰리 라운디 아놀드와 제닌 튜, 8월, 8쪽

말일

“보라, 원수들은 뭉쳤도다”, 닐 에이 맥스웰, 7월, 76쪽

맥케이, 데이비드 오

데이비드 오 맥케이, 켈린 릭스 아담스, 6월, 62쪽

데이비드 오 맥케이: 한 영혼의 가치,

레온 알 하트슨, 10월, 26쪽

멕시코

쌍둥이가 지은 집, 리차드 엠 톰니, 5월, 10쪽

모범

영웅들,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7월, 46쪽

몬테로, 루이만 데이비드 헤르난데즈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 산타크루즈 데 테네리페의 루이만 데이비드 헤르난데즈 몬테로, 줄리 와델, 8월, 63쪽

물문경

물문경의 도구들, 9월, 46쪽
물문경과 나, 조지 디슨, 8월, 33쪽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존 엠 매드슨, 7월, 26쪽

쓰레기 속에서 찾은 책, 크리스티나 안토니오, 10월, 42쪽

물문경 이야기

라모나이의 부친을 가르치는 아론, 10월, 50쪽
엠몬아이하에서의 엘마의 선교 사업, 2월, 50쪽
암몬, 위대한 종, 5월, 50쪽
암몬이 라모나이 왕의 아버지를 만났, 8월, 50쪽
암몬 백성, 12월, 50쪽

물문 메시지

고난, 여러분을 강건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9월, 33쪽
모든 것을 실패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3월, 19쪽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것임, 5월, 33쪽

문요스, 지니아

벨리즈 벨리즈 시의 지니아 문요스, 마빈 케이 가드너, 11월, 62쪽

미름

미르는 습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3월, 20쪽

니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및 스리랑카에서의 교회, 10월, 22쪽

방문 교육 공과

귀 기울여 듣고 신뢰함으로써 우리의 자매애를 강화시킴, 11월, 25쪽

동정:느낌과 행동, 4월, 25쪽

여성의 성약, 12월, 25쪽

염려와 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양육함, 3월, 25쪽

우리의 지역 사회를 향상시킴, 8월, 25쪽

장애자들을 돌봄, 6월, 25쪽

재능은 나누기 위한 것임, 10월, 25쪽

주님을 매일 찾음, 2월, 25쪽

지구의 자원을 적절하게 사용함, 9월, 25쪽

하나님의 왕국을 세움, 5월, 25쪽

배움

“학식을 얻음이 유의할 것이나...”, 보이드 케이 패커, 1월, 71쪽

번성

“보라 주님께서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내게 보이셨으니”, 엘 톰 페리, 1월, 15쪽
주님은 의인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딘 엘 라슨, 1월, 40쪽

베들레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디 켈리 옥든, 12월, 34쪽

벨리즈

벨리즈 벨리즈 시의 지니아 문요스, 마빈 케이 가드너, 11월, 62쪽

병고침

여러분의 상처받은 삶을 치유함, 리차드 지 스코트, 1월, 60쪽

보호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윤대적, 7월, 86쪽
성경 이야기와 개인적인 보호, 델린 에이치 옥스, 1월, 37쪽

봉사

교회의 여성들에게, 하워드 더블류 헌터, 1월, 95쪽

구조 활동, 래리 힐러, 6월, 10쪽

“권유로 이르노니”(앨마서 5:62), 베티 존 앤 잭슨, 1월, 76쪽

그리스도의 사랑, 시 맥스 콜드웰, 1월, 29쪽

따스한 손길과 마음으로, 마조리 드래퍼 콘더, 5월, 34쪽

샤논의 놀라움, 마조리 에이 파커, 9월, 52쪽

선한 사마리아인, 에린 파멜라
 브레이튼, 9월, 56쪽
 신권을 행사함, 토마스 에스 몬슨, 1월, 47쪽
 쌍둥이가 지은 집, 리차드 엠 롬니, 5월, 10쪽
 아무도 쉽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존 비 덕슨, 1월, 45쪽
 여리고로 가는 길, 토마스 에스 몬슨, 6월, 64쪽
 우리의 지역 사회를 향상시킴, 8월, 25쪽
 우리의 크리스마스 파티, 넷사왈코요틀 살리나스 베야사에스, 12월, 18쪽
 일의 원리, 에프 데이비드 스탠리, 7월, 44쪽
 적절할 때의 한 바늘이 열 바늘의 수고를 단다, 8월, 44쪽
 제가 의지하고 있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7월, 83쪽
 친절에서 오는 풍성한 축복, 지에코 엔 오까자끼, 7월, 84쪽
 크리스마스 선물, 12월, 20쪽
 탐색과 구조, 토마스 에스 몬슨, 7월, 48쪽
 하나님의 왕국을 세움, 5월, 25쪽
 황금의 시기, 로버트 엘 백맨, 1월 13쪽

부모의 역할

“네 부모를 공경하라”, 리노 알바레스, 1월, 24쪽
 올바른 원리의 힘, 리차드 지 스코트, 7월, 32쪽
 “훌륭하신 부모님에게서 태어나”, 델러스 엔 아치볼트, 1월, 25쪽

부활

절망의 새벽-환희의 아침, 토마스 에스 몬슨, 5월, 2쪽

부활절

계란과 부활절, 페기 로저스, 4월, 62쪽
 부활절의 의미, 에즈라 태프트 벤슨, 4월, 2쪽
 새로운 느낌의 부활절, 리네트 케이 알렌, 4월, 58쪽

브러프, 몬트 제이

몬트 제이 브러프 강로, 트윈 팩스톤, 3월, 60쪽

브리감 영

브리감 영과 사회적인 책임, 아더 알 배시, 2월, 10쪽

비판

나쁘지 않아요, 즐린 엠 즐리, 3월, 10쪽

사랑

결혼 생활에서의 사랑과 웃음과 영성, 바바라 위크맨, 8월, 12쪽
 그리스도의 사랑, 시 맥스 콜드웰, 1월, 29쪽
 기적-과거와 현재, 토마스 에스 몬슨, 1월, 68쪽
 동정:느낌과 행동, 4월, 25쪽
 말씀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매리온 디 행스, 1월, 63쪽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토마스 에스 몬슨, 1월, 97쪽
 배우자의 행복, 델빈 프루이트, 2월, 46쪽
 브랜드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린 양, 로이스 제이 핑크, 4월, 54쪽
 선물, 토마스 에스 몬슨, 7월, 59쪽
 선한 사마리아인, 에린 파멜라 브레이튼, 9월, 56쪽
 소망의 기쁨을 성취함, 엠 러셀 벨라드, 1월, 31쪽
 쓰레기 통을 뒤지는 노인, 폴 와이스, 3월, 50쪽
 여리고로 가는 길, 토마스 에스 몬슨, 6월, 64쪽
 염려와 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양육함, 3월, 25쪽
 친절에서 오는 풍성한 축복, 지에코 엔 오까자끼, 7월, 84쪽
 후안 카를로스와의 대화 서즈, 잔 엠 스미스, 6월, 50쪽

산티아고 성전

아빌라 형제의 신앙, 호세 오헤다, 11월, 26쪽

사진으로 보는 이야기

가족 앨범: 사진으로 보는 이야기, 2월, 18쪽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디 켈리 옥든, 12월, 34쪽

선교 사업

경교의 음성, 에즈라 태프트 벤슨, 8월, 2쪽
 그림책 간증, 말리 소우반송, 2월, 8쪽
 내가 받은 최고의 생일 선물, 다카미 이와사키 마스꼬, 5월, 13쪽
 신권을 행사함, 토마스 에스 몬슨, 1월, 47쪽
 아무도 쉽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존 비 덕슨, 1월, 45쪽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다면?, 피에르 앙시앙, 10월, 8쪽
 일의 원리, 에프 데이비드 스탠리, 7월, 44쪽
 탐색과 구조, 토마스 에스 몬슨, 7월, 48쪽
 필리핀에서의 선교 사업, 아우구스토우 에이 림, 1월, 82쪽
 황금의 시기, 로버트 엘 백맨, 1월, 13쪽
 훌륭한 선교사, 8월, 45쪽

선물(은혜 참조)

성신

“보라, 원수들은 봉찼도다”, 닐 에이 맥스웰, 7월, 76쪽
 영웅들,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7월, 46쪽

성실

주연 배우, 다이안 호프만, 5월, 16쪽

성약

성약의 여성, 9월, 40쪽
 성전과 의식, 주디 에드워즈, 3월, 54쪽
 주님의 거룩한 집에서, 제이 엠 토드, 11월, 34쪽

성전

개인적인 성전 예배, 데이비드 비 헤이트, 7월, 23쪽
 성전과 신권, 보이드 케이 패커, 7월, 18쪽
 이 평화로운 주님의 집, 고든 비 힝클리, 7월, 72쪽
 주님의 성전, 토마스 에스 몬슨, 7월, 4쪽

성전 사업

개인적인 성전 예배, 데이비드 비 헤이트, 7월, 23쪽
 주님의 성전, 토마스 에스 몬슨, 7월, 4쪽

성찬

또 하나의 성찬 모임, 패트 알레드 버넬, 6월, 14쪽

성탄절(크리스마스)

가장 훌륭한 선물, 지미 카이리, 12월, 16쪽
 갈색 종이 봉지 장식품, 루스 파머, 12월, 64쪽
 고요한 밤, 디엔 위커, 12월, 22쪽
 “권유로 이르노니”(엘마서 5:62), 베티 조 엔 쥘슨, 1월, 76쪽
 낙타를 옮김, 자넷트 아이스톤 맥, 12월, 8쪽

목자들의 कैल, 다니엘 리먼 카터, 12월, 56쪽
우리의 크리스마스 파티, 넷사왈코요들 살리나스 베야사에스, 12월, 18쪽
크리스마스 메시지, 대관장단, 12월, 52쪽
크리스마스 선물, 12월, 20쪽
크리스마스 영, 토마스 에스 문슨, 12월, 2쪽

성약

성약을 지킴, 엠 러셀 벨라드, 7월, 6쪽

성전

성전과 의식, 주디 에드워즈, 3월, 54쪽
성전은 경건한 장소임, 케서 에이 파이필드와 로리 에이치, 11월, 52쪽
성전은 계시의 장소입니다, 주디 에드워즈, 5월, 56쪽
성전은 주님의 집입니다, 주디 에드워즈, 2월, 54쪽
성전은 행복한 곳입니다, 주디 에드워즈, 6월, 54쪽
성전이 우리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프란세스 더블류 핫슨, 11월, 32쪽
아빌라 형제의 신앙, 호세 오헤다, 11월, 26쪽
이 몸은 주가 주신 성전, 도넬 헌터 월포드와 다윈 월포드, 10월, 54쪽
이 몸은 주가 주신 성전, 주디 에드워즈, 10월, 58쪽
전세계의 성전, 주디 에드워즈, 4월, 60쪽
트루먼 오 엔젤: 왕국의 건축가, 샤논 더블류 아슬러, 6월, 56쪽

소망

소망의 기쁨을 성취함, 엠 러셀 벨라드, 1월, 31쪽

속죄

“다시는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되었음을 아노니”, 크레이그 에이 카르돈, 4월, 22쪽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존 엠 매드슨, 7월, 26쪽
생명의 주님, 제이 리차드 클라크, 7월, 9쪽
주님의 은혜, 진 알 룩 장로, 4월, 16쪽

솔트레이크 성전

모든 참문, 모든 뽀족담, 리차드 나이철헤잡필, 11월, 8쪽
성전과 신권, 보이드 케이 패커, 7월, 18쪽

솔트레이크 성전, 고든 비 힝클리, 11월, 2쪽
이 평화로운 하나님의 집, 고든 비 힝클리, 7월, 72쪽
주님의 거룩한 집에서, 제이 엠 토드, 11월, 34쪽
“하나님의 거룩한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라린 간트, 11월, 44쪽

순중

“너희 마음을 굳게 정하라”, 닐 에이 맥스웰, 1월, 65쪽
“네 부모를 공경하라”, 리노 알바레스, 1월, 24쪽
성경 이야기와 개인적인 보호, 델린 에이치 옥스, 1월, 37쪽
안전하고 확실한 길, 비키 앤더슨과 로랄리 윌키, 2월, 56쪽
영적인 거둠, 글렌 엘 페이스, 1월, 11쪽
올바른 원리의 힘, 리차드 지 스코트, 7월, 32쪽
죄가 득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 1월, 4쪽
주님은 의인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딘 엘 라슨, 1월, 40쪽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신성한 도움을 받음, 진 알 룩, 7월, 79쪽
헤어지면서, 토마스 에스 문슨, 1월, 86쪽

시련

고난, 여러분을 강건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9월, 33쪽
시련이 축복으로, 모디보 디아라, 칠리 라운드 아놀드와 제닌 듀, 8월, 8쪽

신권

달리지 않는 캠페인, 데이비, 수잔 이 터너, 5월, 18쪽
성전과 신권, 보이드 케이 패커, 7월, 18쪽
신권을 존중함, 러셀 엠 넬슨, 7월, 38쪽
신권을 행사함, 토마스 에스 문슨, 1월, 47쪽
신앙은 신권의 권세를 불러 오, 존 케이 카막, 7월, 41쪽
아버지, 돌아오세요, 제임즈 이 파우스트, 7월, 35쪽
오직 의의 원리로써만, 고든 비 힝클리, 5월, 20쪽

신앙

기도, 데이비드 이 소렌슨, 7월, 30쪽

기도를 통한 평안, 렉스 디 피네가, 7월, 65쪽
기적에 대한 판단 기준, 로이스 램 리더, 5월, 8쪽
두려움, 버지니아 에이치 피어스, 1월, 90쪽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토마스 에스 문슨, 1월, 97쪽
“보라, 원수들은 동궤도다”, 닐 에이 맥스웰, 7월, 76쪽

성경 이야기와 개인적인 보호, 델린 에이치 옥스, 1월, 37쪽
성전은 주님의 집입니다, 주디 에드워즈, 2월, 54쪽
소망의 기쁨을 성취함, 엠 러셀 벨라드, 1월, 31쪽
신앙으로 인해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구스타보 아돌포 아발로스, 9월, 8쪽
신앙은 신권의 권세를 불러 오, 존 케이 카막, 7월, 41쪽
신앙을 지키십시오, 리차드 시 에즐리, 7월, 11쪽

아버지, 돌아오세요, 제임즈 이 파우스트, 7월, 35쪽
영감으로 잘못된 길, 9월, 40쪽
영적인 간증의 불꽃, 조셀 비 위스린, 1월, 34쪽

이 평화로운 하나님의 집, 고든 비 힝클리, 7월, 72쪽
자신의 태버나클을 지음, 고든 비 힝클리, 1월, 50쪽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신성한 도움을 받음, 진 알 룩, 7월, 79쪽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러셀 엠 넬슨, 1월, 6쪽

평화의 향기에서 비치는 불빛, 하워드 더블류 헌터, 1월, 18쪽
필리핀에서의 선교 사업, 아우구스토우 에이 램, 1월, 82쪽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것임, 5월, 33쪽

신학 연구원

“학식을 얻음이 유익할 것이나...”, 보이드 케이 패커, 1월, 71쪽

심심풀이

2월, 53쪽: 3월, 57쪽: 4월, 64쪽: 5월, 55쪽: 8월, 58쪽: 9월, 60쪽: 10월, 64쪽: 11월, 61쪽

스노우, 로렌조

로렌조 스노우: 한 젊은이의 결정, 아서 알 배시, 5월, 26쪽

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및
스리랑카에서의 교회, 10월, 22쪽

스미스, 요셉

한 예언자로 시작된 교회, 세리 존슨,
12월, 57쪽

스미스, 조셉 에프

조셉 에프 스미스: 가족을 통해 얻은
축복, 아디 알 배시, 6월, 26쪽

스미스, 조셉 필딩

조셉 필딩 스미스, 켈린 릭스 아담스,
9월, 50쪽

조셉 필딩 스미스: 온화한 사도, 레온
알 하트슨, 12월, 26쪽

스미스, 조지 앨버트

조지 앨버트: 사랑의 산 본보기, 아더
알 배시, 9월, 26쪽

조지 앨버트 스미스, 켈린 릭스, 3월,
62쪽

승영

승영으로의 초대, 토마스 에스 문슨,
9월, 2쪽

스페인

스페인과 포르투갈, 3월, 58쪽

모두 나와 있음, 9월, 48쪽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좋은 것, 리사
이이 존슨, 8월, 46쪽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 산타크루즈 데
테네리페의 루이만 데이비드

헤르난데즈 몬테로, 줄리 와델, 8월,
63쪽



아르헨티나

신앙으로 인해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구스타보 아돌포 아발로스, 9월, 8쪽

아름다움

제인의 꽃들, 데보라 흡킨슨, 10월, 60쪽

아시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및
스리랑카에서의 교회, 10월, 22쪽

안식일

달리지 않는 켈피언, 데이비, 수잔 이
터너, 5월, 18쪽

안전

가정을 그리워하는 마음, 마빈 제이
애쉬튼, 1월, 21쪽

앙골라

울리비오 고미즈 만델: 성공의 비결,
리사 에이 존슨, 3월, 34쪽

약속

약속도 잊지 말지니, 제이 이 존슨, 1월,
80쪽

어린이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 미셸린 피
그래슬리, 1월, 92쪽

에즈라 태프트 벤슨

예언자의 간증, 고든 비 힝클리, 7월,
93쪽

헤어지면서, 토마스 에스 문슨, 1월,
86쪽

에콰도르

에콰도르, 돈 엘 시릴, 4월, 32쪽

엔젤, 투르먼 오

투르먼 오 엔젤: 왕국의 건축가, 샤는
더블류 아슬러, 6월, 56쪽

여성

나는 “집안에 갇혀 있는 여자”입니까?
페트리아 켈리, 3월, 46쪽
명예로운 개척자들이여 축복받을지어다,
3월, 12쪽

여성의 성약, 12월, 25쪽

역경

기적-과거와 현재, 토마스 에스 문슨,
1월, 68쪽

말씀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매리온
디 행스, 1월, 63쪽

영적인 거둬담, 글렌 엘 페이스, 1월,
11쪽

연차 대회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로워짐, 존 이
파울러, 1월, 78쪽

영웅

영웅들,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7월, 46쪽

예수 그리스도

경전을 상고하십시오, 엘 라이오넬
켄드리, 7월, 13쪽

경전을 상고함으로써 그리스도께
나아옴, 매릴 제이 베이트먼, 1월,
27쪽

교회의 여성들에게, 하워드 더블류
헌터, 1월, 95쪽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라, 로웰 디 우드,
7월, 88쪽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둔 교회의 힘,
브이 델러스 메릴, 7월, 28쪽

그리스도: 마지막 성역 구간, 구스타프
도레이, 목판화, 4월, 26쪽

그들은 주님을 알고 있다: 말말의
예언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간증함, 4월, 6쪽

그리스도의 사랑, 시 맥스 콜드웰, 1월,
29쪽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 미셸린 피
그래슬리, 1월, 92쪽

“다시는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되었음을
기억하노니”, 크레이그 에이 카르돈,
4월, 22쪽

목자들의 캐럴, 다니엘 리먼 카터, 12월,
56쪽

목자를 알라, 로버트 이 웰즈, 12월, 10쪽
부활절의 의미, 에즈라 태프트 벤슨,
4월, 2쪽

브랜든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린 양,
로이스 제이 핑크, 4월, 54쪽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존 엠 매드슨, 7월, 26쪽

소망의 기쁨을 성취함, 엠 러셀 벨라드,
1월, 31쪽

신앙을 지키십시오, 리차드 시 에즐리,
7월, 11쪽

영적인 간증의 불꽃, 조셉 비 워스틴,
1월, 34쪽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회복의
중심입니다, 케리 제이 콜맨, 1월,
43쪽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구속주이심, 에즈라 태프트 벤슨, 4월,
52쪽

예수께서 걸으신 길, 토마스 에스 문슨,
2월, 2쪽

“예언자의 간증”, 고든 비 힝클리, 7월,
93쪽

주님은 살아 계시며, 샬리 제이
오데커크, 12월, 32쪽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밀라 그린우드
타이네, 4월, 56쪽

최후의 만찬, 4월, 12쪽

평화의 항구에서 비치는 불빛, 하워드
더블류 헌터, 1월, 18쪽

예언자

교회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고든
비 힝클리, 1월, 53쪽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로워짐, 존 이
파울러, 1월, 78쪽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회복의
중심입니다, 케리 제이 콜맨, 1월,
43쪽

예언자들을 따르라, 주디 에드워즈, 8월,
60쪽

용기있는 사람, 존 테일러, 리안 알
하즈혼, 3월, 26쪽

죄가 득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 1월, 4쪽
헤어지면서, 토마스 에스 몬슨, 1월, 86쪽
한 예언자로 시작된 교회, 세리 존슨, 12월, 57쪽

온유함

“예수님 생각하오니”, 하워드 더블류 헌터, 7월, 63쪽

용기

기적-파괴와 현재, 토마스 에스 몬슨, 1월, 68쪽
두려움, 버지니아 에이치 피어스, 1월, 90쪽
영감으로 잘못된 든 길, 9월, 40쪽
용기있는 사람, 존 테일러, 리안 알 하츠혼, 3월, 26쪽

우경

내가 받은 최고의 생일 선물, 다카미 이와사키 마스코, 5월, 13쪽

윌포드 우드립

윌포드 우드립: 신앙과 열정의 인물, 레온 알 하트슨, 4월, 42쪽

유럽

유럽 지중해 지역: 새로운 도전과 성장, 8월, 22쪽

은퇴

황금의 시기, 로버트 엘 백맨, 1월, 13쪽

은혜

선물, 토마스 에스 몬슨, 7월, 59쪽
주님의 은혜, 진 알 쿡, 4월, 16쪽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신성한 도움을 받음, 진 알 쿡, 7월, 79쪽

음악

가족은 영원해, 루스 엠 가드너와 벤자 와이 윌킨즈, 3월, 56쪽
목자들의 캐럴, 다니엘 리먼 카터, 12월, 56쪽
이 몸은 주가 주신 성전, 도넬 헌터와 다윈 윌포드, 10월, 54쪽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밀라 그린우드 타이네, 4월, 56쪽

이스라엘

한 음성, 라린 간트, 10월, 10쪽

인내

말씀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매리온 디 행스, 1월, 63쪽
“믿는 자에게 분이 되어”, 토마스 에스 몬슨, 1월, 97쪽

인도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윤대익, 7월, 86쪽

인도(국명)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및 스리랑카에서의 교회, 10월, 22쪽

자녀

올바른 원리의 힘, 리차드 지 스코트, 7월, 32쪽

자녀 학대

숨겨진 고민, 리사 에이 존슨, 2월, 26쪽

자매애

키기울여 들고 신뢰함으로써 우리의 자매애를 강화시킴, 11월, 25쪽

자선(사랑 참조)

자신

여러분 자신을 좋아하십시오, 조지 아이 캐넌, 10월, 46쪽

자유

“주님의 말씀의 권세로 저들은 감옥을 깨뜨려”, 제임즈 엠 페러모어, 1월, 9쪽

자유의지

개심을 통한 확신, 에일린 에이치 클라이드, 1월, 88쪽
내가 왜 도망가고 있지?, 9월, 22쪽
여러분의 상처받은 삶을 치유함, 리차드 지 스코트, 1월, 60쪽

자존심

개심을 통한 확신, 에일린 에이치 클라이드, 1월, 88쪽
“훌륭하신 부모님에게서 태어나”, 델러스 엔 아치볼드, 1월, 25쪽

장애자

장애자들 도움, 6월, 25쪽

재능

헬리의 재능, 테브라 헤드필드, 5월, 52쪽
여러분 자신을 좋아하십시오, 조지 아이 캐넌, 10월, 46쪽
재능은 나누기 위한 것임, 10월, 25쪽
재능을 키움, 9월, 47쪽

잭슨, 베키

주연 배우, 다이안 호프만, 5월, 16쪽

전세계의 교회(각국의 이름 참조)

가족 앨범, 2월, 18쪽
따스한 손길과 마음으로, 마조리 드래퍼 콘더, 5월, 34쪽
명예로운 개혁자들이여 축복받을지어다, 매리 엘렌 어드먼즈, 3월, 12쪽

오직 의의 원리로써만, 고든 비 힝클리, 5월, 20쪽

전세계의 성전, 주디 에드워즈, 4월, 60쪽

정직

나는 정직함을 믿습니다, 주디 에드워즈, 9월, 54쪽
둔보 톱보에서의 하루, 에시나스, 무투만지, 6월, 8쪽
우리는 정직함을 믿는다, 고든 비 힝클리, 6월, 2쪽
주님의 말씀의 권세로 저들은 감옥을 깨뜨려, 제임즈 엠 페러모어, 1월, 9쪽

존경

기도의 언어, 델린 에이치 옥스, 7월, 15쪽
신권을 존중함, 러셀 엠 넬슨, 7월, 38쪽

죽음

기적에 대한 판단 기준, 로이스 램 리더, 5월, 8쪽
아빠를 보내 드림, 페트리샤 알 로퍼, 4월, 10쪽
결망의 새벽-환희의 아침, 토마스 에스 몬슨, 5월, 2쪽

준비

소년 시절에 배운 교훈들, 고든 비 힝클리, 7월, 52쪽

준트라티프, 폰차이

폰차이 준트라티프: 영적으로 준비됨, 데이비드 미첼, 2월, 42쪽

중앙 아메리카

중앙 아메리카에서 발전하는 교회, 6월, 21쪽

지도력

신권을 존중함, 러셀 엠 넬슨, 7월, 38쪽

지역 사회

우리의 지역 사회를 향상시킴, 8월, 25쪽

지혜의 말씀

경고, 주디 에드워즈, 11월, 56쪽

진리

말씀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매리 온 디 행스, 1월, 63쪽
여러분의 상처받은 삶을 치유함, 리차드 지 스코트, 1월, 60쪽

질의 응답

미루는 습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3월, 20쪽

친구가 친구에게

로날드 이 포올맨 장로, 켈린 릅스 아담스, 8월, 52쪽
매리온 디 행스 장로, 자넷 피터슨, 10월, 52쪽

몬트 제이 브러프 장로, 트린 팩스톤,
3월, 60쪽
엘 라이오넬 켄드릭, 자넷 피터슨, 2월,
60쪽
호레이쇼 에이 테노리오 장로, 비벌리
제이 알스트롬, 5월, 58쪽

친구 사귀기

벨리즈 벨리즈 시의 지니아 문요스,
마빈 케이 가드너, 11월, 62쪽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 산타크루즈 데
테네리페의 루이만 데이비드
헤르난데즈 몬테로, 줄리 와델, 8월,
63쪽
포르투갈 파디의 알렉산드라 마리나
페레이라 칼라도, 줄리 와델, 5월,
60쪽

친절

친절에서 오는 풍성한 축복, 지에코 엔
오카자키, 7월, 84쪽

칠레

성스런 대지에 서서, 그레고리 엔시나
빌리코프, 2월, 30쪽
아빌라 형제의 신앙, 호세 오헤다, 11월,
26쪽

침례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라, 로웰 디 우드,
7월, 88쪽

태국

어린이가 어린이에게 주는 선물, 준
엘드리지와 루이스 엘드리지, 4월,
50쪽
태국의 성도들, 데이비드 미첼, 5월,
40쪽
몬차이 준트라티프: 영적으로 준비됨,
데이비드 미첼, 2월, 42쪽

태버나클

자신의 태버나클을 지음, 고든 비
힝클리, 1월, 50쪽

태버나클 합창단

한 음성, 라린 간트, 10월, 10쪽

테노리오, 호레이쇼 에이

호레이쇼 에이 테노리오 장로, 비벌리
제이 알스트롬, 5월, 58쪽

테일러, 존

용기있는 사람, 존 테일러, 리안 알
하츠혼, 3월, 26쪽

파라과이

카를로스와 마리아 로이그: 마음의
변화, 마빈 케이 가드너, 3월, 40쪽
파라과이의 개척자들, 마빈 케이
가드너, 9월, 10쪽

파키스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및
스리랑카에서의 교회, 10월, 22쪽

페트리시오, 아빌라

아빌라 형제의 신앙, 호세 오헤다, 11월,
26쪽

평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윤대적, 7월, 86쪽
기도를 통한 평안, 텍스 디 피네가, 7월,
65쪽
선물, 토마스 에스 몬슨, 7월, 59쪽
아빠를 보내 드림, 페트리샤 알 로퍼,
4월, 10쪽
주님의 성전, 토마스 에스 몬슨, 7월,
4쪽
평화의 항구에서 비치는 불빛, 하워드
더블류 헌터, 1월, 18쪽

포르투갈

뉴스 속의 친구들: 스페인과 포르투갈,
3월, 58쪽
올리비오 고미즈 만렙: 성공의 비결,
리사 에이 존슨, 3월, 34쪽
포르투갈 파디의 알렉산드라의 마리나
페레이라 칼라도, 줄리 와델, 5월,
60쪽

포올맨, 로날드 이

로날드 이 포올맨 장로, 켈린 릭스
아담스, 8월, 52쪽

포틀랜드 성전

성전은 경건한 장소입니다, 캐서린 에이
파이필드, 11월, 52쪽

피지

피지: 신앙의 섬, 설린 마이크 손더스,
2월, 32쪽

필리핀

쓰레기 속에서 찾은 책, 크리스티나
안토니오, 10월, 42쪽

한국

대한민국: 조용한 아침의 나라, 켈린
릭스 아담스, 8월, 34쪽

행스, 매리온 디

매리온 디 행스 장로, 자넷 피터슨,
10월, 52쪽

함께 나누는 시간

경고, 주디 에드워즈, 11월, 56쪽
나는 정직함을 믿습니다, 주디
에드워즈, 9월, 54쪽
성전과 의식, 주디 에드워즈, 3월, 54쪽
성전은 계시의 장소입니다, 주디
에드워즈, 5월, 56쪽

성전은 주님의 집입니다, 주디

에드워즈, 2월, 54쪽

성전은 행복한 곳임, 주디 에드워즈,
6월, 54쪽

예언자들을 따르라, 주디 에드워즈, 8월,
60쪽

이 몸은 주가 주신 성전, 주디

에드워즈, 10월, 58쪽

전세계의 성전, 주디 에드워즈, 4월,
60쪽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려요, 주디
에드워즈, 12월, 54쪽

헌신

“너희 마음을 굳게 정하라”, 닐 에이
맥스웰, 1월, 65쪽

환경

지구의 자원을 적절하게 사용함, 9월,
25쪽

활동이 저조한 회원

교회 회원이 아닌 부모님, 케이시 놀,
8월, 42쪽

활동 촉진

탐색과 구조, 토마스 에스 몬슨, 7월,
48쪽

회개

나쁘지 않아요, 줄리 앤 줄리, 3월, 10쪽

“다시는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되었음을
기억하노니”, 크레이그 에이 카르돈,
4월, 22쪽

생명의 주님, 제이 리차드, 클라크, 7월,
9쪽

성약을 지킵, 엠 러셀 벨라드, 7월, 6쪽
영적인 간증의 불꽃, 조셉 비 워스린,
1월, 34쪽

“주님의 말씀의 권세로 저들은 감옥을
깨뜨려”, 제임스 엠 페러모어, 1월,
9쪽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신성한 도움을
받음, 진 알 쿡, 7월, 79쪽

휘트니 상점

계시의 집, 10월, 34쪽

희생

값진 유산, 제임스 이 파우스트, 1월,
84쪽

힘

자신의 태버나클을 지음, 고든 비
힝클리, 1월, 50쪽

저자 색인

ㄱ

가드너, 마빈 케이

카를로스와 마리아 로이그: 마음의

변화, 3월, 40쪽

파라과이의 개척자들, 9월, 10쪽

벨리크 벨리크 시의 지나 문요스, 11월, 62쪽

가드너, 루스 뷰어

가족은 영원해, 3월, 50쪽

간트, 라린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11월, 44쪽

한 음성, 10월, 10쪽

케이슬러, 원프레드 알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파함, 6월, 뒷표지 안쪽

고르카, 테오도르

1836년 4월 3일, 커틀랜드 성전에서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신 주님, 10월, 뒷표지 안쪽

그라임즈, 캐롤

조용히 할 때, 8월, 58쪽

ㄴ

늘 케이시

교회 회원이 아닌 부모님, 8월, 42쪽

ㄷ

대관장단

대관장단 부활절 인사, 4월, 1쪽

성탄절 메시지, 12월, 52쪽

도레이, 구스타브

그리스도: 마지막 성역 구간, 4월, 26쪽

도미니코, 샤롯데 그로스니켈

어느 소년의 간증, 9월, 61쪽

디아라, 모디보

시련이 축복으로, 8월, 8쪽

덕슨, 조지

물론경과 나, 8월, 33쪽

ㄹ

로빈슨, 샤우나

새로운 접근 방법, 4월, 20쪽

로운즈, 엘

1885년 메인 스트리트에서 본 광경,

11월, 뒷표지 안쪽

로저스, 페기

케란과 부활절, 4월, 62쪽

로퍼, 페트리샤 알

아빠를 보내 드림, 4월, 10쪽

롬니, 리차드 엠

쌍둥이가 지은 집, 5월, 10쪽

루이스, 앤 램런

경전 짚기, 5월, 55쪽

리더, 로이스 램

기적에 대한 판단 기준, 5월, 8쪽

리베로, 캐롤 앤 보우먼

마놀리의 첫 금식, 3월, 24쪽

ㄴ

마스꼬, 다카미 이와사키

내가 받은 최고의 생일 선물, 5월, 13쪽

만, 폴

크리스마스의 참된 영, 12월, 표지

맥스웰, 닐 에이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무엇인가?, 8월, 19쪽

몬슨, 토마스 에스

승영으로의 초대, 9월, 2쪽

여리고로 가는 길, 6월, 64쪽

예수께서 걸으신 길, 2월, 2쪽

절망의 새벽-환희의 아침, 5월, 2쪽

크리스마스의 영, 12월, 2쪽

무투만지, 에시나스

등보 통보에서의 하루, 6월, 8쪽

미첼, 데이비드

태국의 성도들, 5월, 40쪽

폰차이 준트라티프: 영적으로 준비됨,

2월, 42쪽

ㄷ

배시, 아더 알

브리감 영과 사회적인 책임, 2월, 10쪽

로렌조 스노우: 한 젊은이의 결정, 5월, 26쪽

조셉 에프 스미스: 가족을 통해 얻은 축복, 6월, 26쪽

조지 엘버트 스미스: 사랑의 산 본보기, 9월, 26쪽

버넬, 패트 알레드

또 하나의 성찬 모임, 6월, 14쪽

빅, 자넷 아이스톤

낙타를 옮김, 12월, 8쪽

메야사에스, 넷사왈코요를 살리나스

우리의 크리스마스 파티, 12월, 18쪽

메이크, 마리안 프로스트

여호와와의 말씀에, 2월, 53쪽

벤슨, 에즈라 태프트

경고의 음성, 8월, 2쪽

부활절의 의의, 4월, 2쪽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구세주이심, 4월, 52쪽

브레이튼, 파멜라

선한 사마리아인 에런, 9월, 56쪽

빌리코프, 그레고리 엔시나

성스런 대지에 서서, 2월, 30쪽

ㄷ

소우변송, 말리

그림책 간증, 2월, 8쪽

손더스, 셸린 마이크

피지: 신앙의 섬, 2월, 32쪽

쇼타니아, 리우다

우리 체소밭에서, 9월, 뒷표지 안쪽

쉐퍼, 마크

편 고르기, 10월, 55쪽

스미스, 게리 이

나부 성전 건축, 2월, 뒷표지 안쪽

스미스, 잔 엠

후안 카를로스와의 대화 셔츠, 6월, 50쪽

스카폴라, 안젤로

회복을 찾아서, 6월, 16쪽

스필먼, 캐롤

마블 게임, 11월, 61쪽

시릴, 돈 엘

에콰도르, 4월, 32쪽

ㅇ

아놀드, 철리 라운디

시련이 축복으로, 8월, 8쪽

아담스, 켈린 리스

대한민국: 조용한 아침의 나라, 8월, 34쪽

데이비드 오 맥케이, 6월, 62쪽

조셉 필딩 스미스, 9월, 50쪽

조지 엘버트 스미스, 3월, 62쪽

로널드 이 포울맨, 8월, 52쪽

해롤드 비 리, 11월, 50쪽

토드, 제이 엠

주님의 거룩한 집에서, 11월, 34쪽

튜, 제닌

시련이 축복으로, 8월, 8쪽

도

파머, 루스

갈색 종이 봉지 장식품, 12월, 64쪽

파이필드, 캐스린 에이와 로리 에이치

성전은 경건한 장소입니다, 11월, 52쪽

파커, 마조리 에이

샤논의 놀라움, 9월, 52쪽

팩스턴, 트린

몬트 제이 브러프 장로, 3월, 60쪽

포덤, 주디

손수건 인형, 6월, 60쪽

핑크, 로이스 제이

브랜든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린 양,
4월, 54쪽

페어럴, 로버타 엘

점 잇기, 2월, 53쪽

점 잇기, 9월, 60쪽

프루이트, 델빈 엘

배우자의 행복, 2월, 46쪽

플로렌스 2세, 질즈 에이치

덴마크의 바다와 농토와 사람들, 6월,
36쪽

피어슨, 타라

기적을 바람, 10월, 33쪽

피터슨, 자넷

메리온 디 핸드스 장로, 10월, 52쪽

엘 라이오넬 캔드릭 장로, 2월, 60쪽

ㅎ

하트슨, 레온 알

데이비드 오 맥케이: 한 영혼의 가치,
10월, 26쪽

윌포드 우드럽: 신앙과 열정의 인물,
4월, 42쪽

용기있는 사람, 존 테일러, 3월, 26쪽

조셉 필딩 스미스: 온화한 사도, 12월,
26쪽

허버 제이 그랜트: 변명하지 않는 사람,
8월, 26쪽

햇슨, 프란세스 더블류

성전이 우리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11월, 32쪽

헤드필드, 테브라

헬리의 재능, 5월, 52쪽

헌터, 도넬

이 몸은 주가 주신 성전, 10월, 54쪽

호프만, 다이안

주연 배우, 5월, 16쪽

홀잡펠, 리차드 나이켈

모든 창문, 모든 뾰족탑, 11월, 8쪽

흠킨슨, 데보라

제인의 꽃들, 10월, 60쪽

힐러, 래리

구조 활동, 6월, 10쪽

헝클리, 고든 비

“그것은 참되니까요, 그렇잖습니까?”,
10월, 2쪽

나는 믿습니다, 3월, 2쪽

솔트레이크 성전, 11월, 2쪽

오직 의의 원리로써만, 5월, 20쪽

우리는 정직함을 믿는다, 6월, 2쪽

**대회 말씀
1992년 10월대회
1993년 1월호**

ㄱ

그래슬리, 미셸린 피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 92쪽

ㄴ

넬슨, 러셀 엠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6쪽

ㄷ

딕슨, 존 비

아무도 쉽다고 말하지 않았습니, 45쪽

ㄹ

라슨, 딘 엘

주님은 의인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40쪽

림, 아우구스토 에이

필리핀에서의 선교 사업, 82쪽

ㅁ

맥스웰, 닐 에이

“너희 마음을 굳게 정하라”, 65쪽

몬슨, 토마스 에스

기적-과거와 현재, 68쪽

“믿는 자에게 분이 되어”, 97쪽

신권을 행사함, 47쪽

헤어지면서, 86쪽

ㄴ

백맨, 로버트 엘

황금의 시기, 13쪽

벨라드, 엠 러셀

소망의 기쁨을 성취함, 31쪽

베이트먼, 메릴 제이

경전을 상고함으로써 그리스도께
나아옴, 27쪽

ㄴ

스코트, 리차드 지

여러분의 상처받은 삶을 치유함, 60쪽

ㅇ

아치볼드, 델리스 엔

홀름하신 부모님에게서 태어나, 25쪽

알바레스, 리노

“네 부모를 공경하라”, 24쪽

애쉬튼, 마빈 제이

가정을 그리워하는 마음, 21쪽

옥스, 델린 에이치

성경 이야기와 개인적인 보호, 37쪽

워스런, 조셉 비

영적인 간증의 불꽃, 34쪽

ㅈ

젠슨, 제이 이

약속도 잊지 말지니, 80쪽

젯슨, 베티 조 앤

권유로 이르노니, 76쪽

ㅋ

콜드웰, 시 맥스

그리스도의 사랑, 29쪽

쿨맨, 게리 제이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회복의
중심입니다, 43쪽

클라이드, 에일린 에이치

개심을 통한 확신, 88쪽

ㅊ

파우스트, 제임즈 이

값진 유산, 84쪽

파울러, 존 이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로워짐, 78쪽

패러모어, 제임즈 엠
"주님의 말씀의 권세로 저들은 감옥을
깨뜨려", 9쪽

패커, 보이드 케이
"학식을 얻음이 유익할 것이나...", 71쪽

페리, 엘 톰
"보라 주님께서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내게 보이셨으니", 15쪽

페이스, 글렌 엘
영적인 거듭남, 11쪽

피어스, 버지니아 에이치
두려움, 90쪽

ㅎ

행스, 매리온 디
말씀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63쪽

헌터, 하워드 더블류
교회의 여성들에게, 95쪽
평화의 항구에서 비치는 불빛, 18쪽

헤이트, 데이비드 비
복음의 원리를 따르는 성공적인 삶,
74쪽

힝클리, 고든 비
교회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53쪽
자신의 태버나클을 지음, 50쪽
죄가 득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4쪽

대회 말씀
1993년 4월 대회
1993년 7월호

ㄴ

넬슨, 러셀 엠
신권을 존중함, 38쪽

ㄷ

매드슨, 존 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26쪽

맥스웰, 닐 에이
"보라 원수들은 몽켰도다", 76쪽

매릴, 브이 델러스
그리스도에 뿌리를 둔 교회의 힘, 28쪽

몬슨, 토마스 에스
선물, 59쪽

주님의 성전, 4쪽
탐색과 구조, 48쪽

ㄴ

벨라드, 엠 러셀
성약을 지키, 6쪽

버튼, 에이치 데이비드
영웅들, 46쪽

ㄷ

소렌슨, 데이비드 이
기도, 30쪽

스코트, 리차드 지
올바른 원리의 힘, 32쪽

스탠리, 에프 데이비드
일의 원리, 44쪽

ㅇ

앤더슨, 닐 엘
"주께서 부르시는 사람을 주께서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82쪽

에즐리, 리차드 시
신앙을 지키십시오, 11쪽

우드, 로웰 디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라, 88쪽

워스런, 조셉 비
영적으로 강건한 가정과 가족들, 68쪽

윤대리
"그가 나를 부른 조장에 누이시며",
86쪽

오카자키, 지에포 엔
킨절에서 오는 풍성한 축복, 84쪽

옥스, 델린 에이치
기도의 언어, 15쪽

ㅋ

카막, 존 케이
신앙은 신권의 권세를 불러옴, 41쪽

켄드릭, 엘 라이오넬
경전을 상고하십시오, 13쪽

쿡, 진 알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신성한 도움을
받음, 79쪽

크리스토퍼슨, 디 토드
제가 의지하고 있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83쪽

클라크, 제이 리차드
생명의 주님, 9쪽

ㄹ

파우스트, 제임즈 이
아버지, 돌아오세요, 35쪽

패커, 보이드 케이
성전과 신권, 18쪽

페리, 엘 톰
복음의 원리로 돌아감, 9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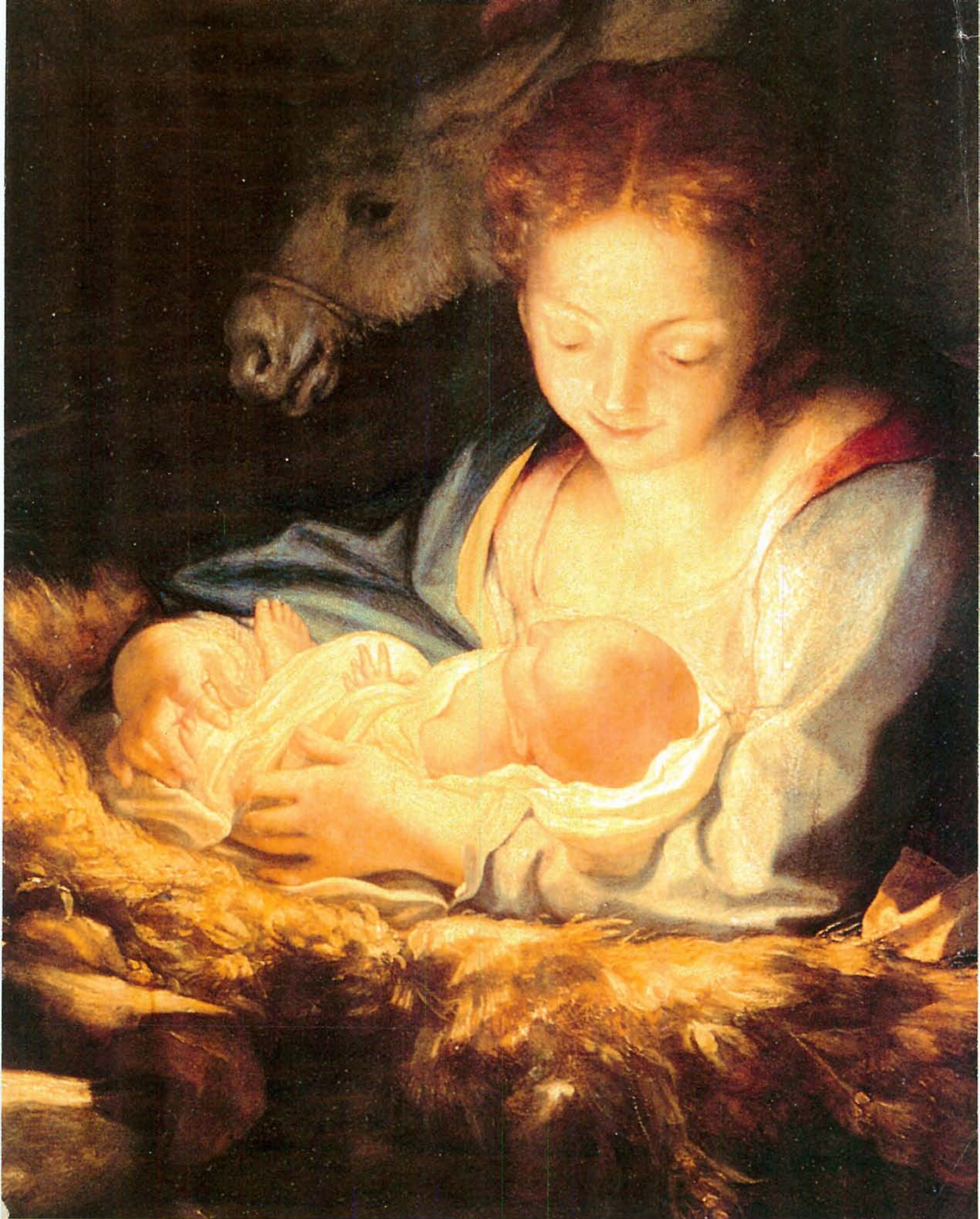
피네가, 렉스 디
기도를 통한 평안, 65쪽

ㅎ

헌터, 하워드 더블류
"예수님 생각하오니", 63쪽

헤이트, 데이비드 비
개인적인 성전 예배, 23쪽

힝클리, 고든 비
소년 시절에 배운 교훈들, 52쪽
"예언자의 간증", 93쪽
이 평화로운 하나님의 집, 72쪽



거룩한 밤, 이탈리아 예술가인 안토니오 알레그리 다 코레지오(1494-1534)

"미디안에서 마시드온 내신 가버르 삼년 구유에 내려다다" (누기부은 27)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누가 복음 2:10~11, 16)